2023 제4회 제주학 주간 (2023. 9. 20.~10. 6.)

제주학, 기록으로 새기다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빛나는 제주의 도약
2025 APEC 제주개최!

제7회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일시: 2023년 9월 20일(수) 13:00~18:00
장소: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3 제4회 제주학 주간 및 제7회 제주학대회

제주학, 기록으로 새기다

전국학술대회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9. 20. 수요일 13시 •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

초청 특강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문화
진관훈(제주테크노파크 수석 연구원)
9. 21. 목요일 14시 •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

제주학 역사 탐방
비문(碑文)에 새긴 제주의 역사와 기록
백종진(제주문화원 사무국장)
9. 22. 금요일 9시 30분 • 제주 동부지역

제주어 포럼 '눌'
사전(辭典), 익어가다
10. 6. 금요일 13시 30분
제주대학교 중앙디지털도서관 3층 라이브러리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공동 개최)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와 제주인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따뜻한 제주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3 제4회 제주학 주간 (2023. 9. 20.~10. 6.)

제주학, 기록으로 새기다

제7회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3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9. 20. 수요일 13시 ·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

13:00-13:30	등록, 제주학연구센터 홍보영상 상영
13:30-13:50	**개회식**
13:50-14:30	기조 발표 **제주의 기억과 기록,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 **김재순**(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14:30-14:40	휴식
	1부 주제 발표 **좌장: 허남춘**(제주대학교 명예교수)
14:40-15:05	주제 발표 1 **고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내외의 시선과 기록 전통**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5:05-15:30	주제 발표 2 **기억의 기록, 왜 구술 자료가 중요한가**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5:30-15:55	주제 발표 3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인의 기억과 현장** **안현미**(스토리AHN 대표)
15:55-16:20	주제 발표 4 **기억과 기록의 네트워크로서 제주학 아카이브**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6:20-16:30	휴식
	2부 종합 토론 **좌장: 전영준**(제주대학교 교수)
16:30-17:40	**박지훈**(공주대학교 교수) **김치완**(제주대학교 교수) **김나영**(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정용복**(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 팀장) **변지철**(연합뉴스 기자)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차
례

개회식

인사말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6

격려사 양덕순(제주연구원장) 8

축사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10

김경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2

기조발표

기조발표문 제주인의 기억과 기록,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 16

- 중앙 및 지방정부 아카이브스 협력모델 제안

(김재순, 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1부 주제 발표

발표 1 고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내외의 시선과 기록 전통 32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발표 2 기억의 기록: 왜 구술 자료가 중요한가? 58

(정연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발표 3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인의 기억과 현장 80

(안현미, 스토리 AHN 대표, 제주한라대학교 겸임교수)

발표 4 기억과 기록의 네트워크로서 제주학 아카이브 102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2부 종합 토론

토론 1 제주학 아카이브의 양적·질적 성장을 기대하며 124

(박지훈, 공주대학교 교수)

토론 2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토론문 130

(김치완,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3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토론문 136

(김나영,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토론 4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토론문 143

(정용복,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 팀장)

토론 5 사라져가는 제주 문화… 구술채록의 관리·활용 방안은? 155

(변지철, 연합뉴스 기자)

토론 6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토론문 158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제주학'의 가치와 의의를 조망하고, 기억과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겨보는 〈제4회 제주학 주간 행사 및 제7회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를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학, 기록으로 새기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전국학술대회, 초청 특강, 역사 탐방, 제주어 포럼 등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특히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를 주제로 한 오늘 학술대회는 고문헌, 구술 자료,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해온 분들과 한자리에서 제주학의 미래와 아카이브의 새로운 구축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이기에 더없이 행복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오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기조발표를 해 주시는 김재순 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님과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전경목·정연경 교수님, 안현미 대표님, 조정현 선생님, 좌장을 맡아주신 허남춘·전영준 교수님께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제주학의 미래와 아카이브의 새로운 구축 방향을 위해 값진 토론을 해주시는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제주학 플랫폼'으로서 제주학의 학풍 진작과 지평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학의 올곧은 정립을 위하여 제주인의 삶과 역사, 문화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기억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도 도민 사회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 구성원 모두는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귀한 의견들은 모아 향후 제주학이 한층 더 발전하고 도민 사회와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열린 제주학, 따뜻한 제주학'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기억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이 행사 준비를 위해 정성을 다해준 우리 센터 식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선선한 바람이 반가운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두루 평안하신지요?

이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에 접어드니, 벌써부터 희망찬 내년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학, 기록으로 새기다'를 주제로 제주학 주간 행사와 전국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애쓴 김순자 센터장과 센터 가족 모두에게 애쓰셨다는 격려의 마음부터 전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환절기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주학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2011년 8월부터 제주학연구센터와 함께 제주학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공론화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제주학의 역할은 지역의 기초학문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재생산해내는 원천자료로서 지역학 기초자료의 생산과 공유는 제주학연구센터 본연의 임무이자 과제입니다. 이번 학술대회 역시 제주의 기억

과 기록을 주목하고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대성하고 더욱 활발하게 공유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지역학의 기초 자료 구축으로부터 효과적인 정책 생산으로 나아가며 실제적인 실현 사업까지 수행하는 종합적 연구 및 진흥 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학연구센터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에서 기조발표를 해주실 김재순 전 나라기록관장님을 비롯해 발표와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7회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활발한 연구로 제주와 제주인의 가치를 드높이고 계신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제주학 아카이브 운영, 제주 역사 편찬, 제주어 연구 등 제주에 관한 전방위적인 연구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학술대회를 열어 제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올해는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의 장이 펼쳐집니다.

디지털 아카이브가 다양한 자료를 기록하고, 잊혀져가는 공동체의 문화적 원형을 보전·계승할 수 있는 탁월한 수단인 만큼, 이에 대한 다채로운 혜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가 잊고 있던, 혹은 잃어버렸던 제주의 기억과 기록의 참된 가치를 재조명하여 제주의 미래를 더욱 빛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정은 제주인의 지혜와 진취적 역사가 담긴 옛 기록을 발굴·보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 어제와 오늘에서, 빛나는 미래의 큰 가치를 찾겠습니다.

아울러,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가 관광과 K-콘텐츠 발전의 든든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대중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공유할 전문적인 식견과 대안이 국내 지역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7회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 제4회 제주학 주간이 함께 개최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하시는 전문가 여러분, 내빈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제주학대회는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를 주제로 열립니다.

제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역사는 기억으로 기록하고, 기록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편파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억들이 기록되고, 기록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집대성될 때 제주의 역사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번 제주학 주간에는 학술대회뿐 아니라 제주화전마을의 화전문화 특강과 제주학 역사탐방, 제주어포럼도 함께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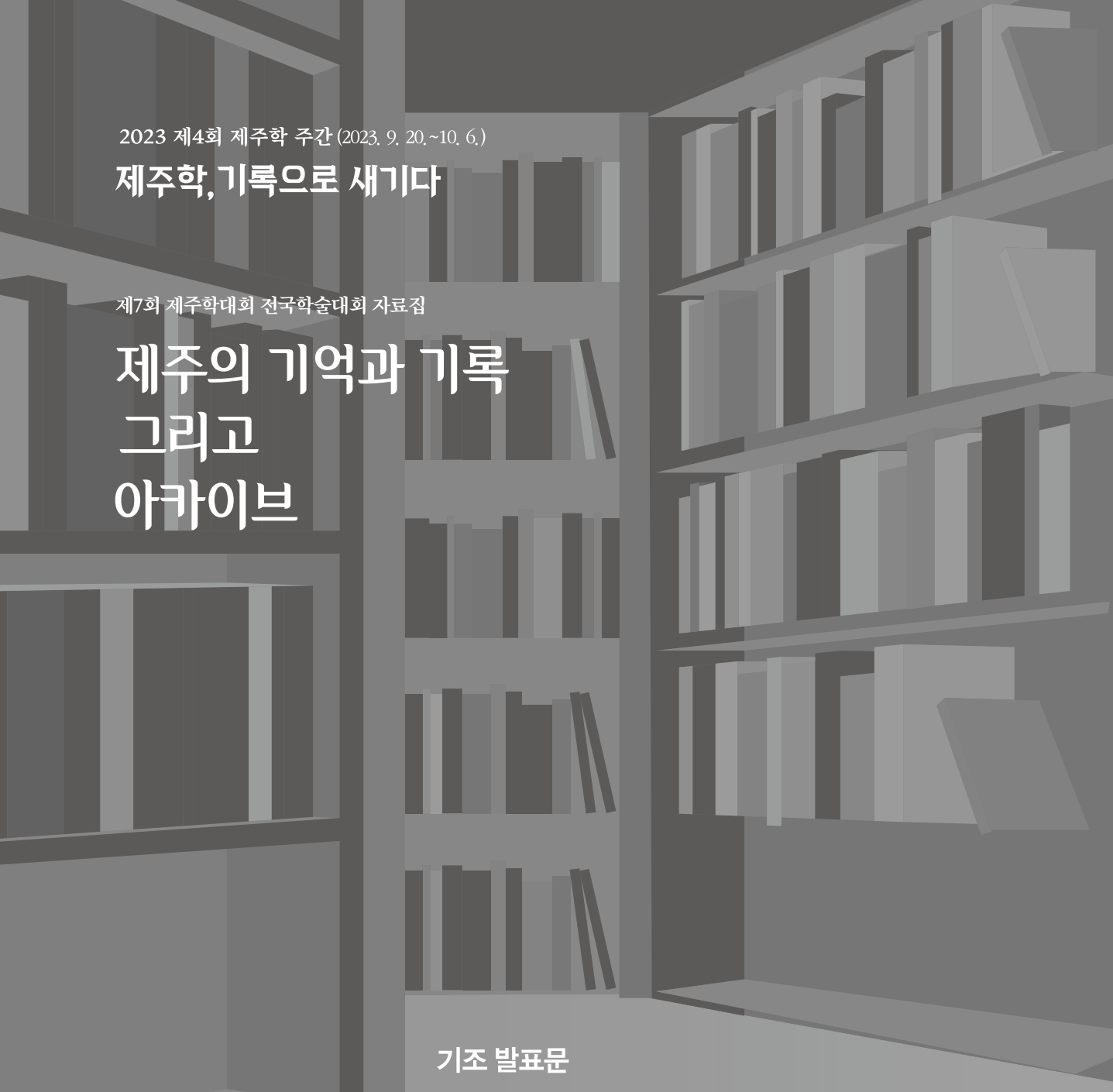
제주의 인문과 사회, 문화와 역사에 대해 풍성하게 즐기고 체험하며 알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주의 문화와 생활을 학문적으로 집대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오신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의 문화를 살찌우고 역사를 풍성하게 하며, 제주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제7회 제주학대회를 거듭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0일



2023 제4회 제주학 주간 (2023. 9. 20.~10. 6.)

제주학, 기록으로 새기다

제7회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기조 발표문

제주인의 기억과 기록,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

- 중앙 및 지방정부 아카이브스 협력모델 제안

제주인의 기억과 기록,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

- 중앙 및 지방정부 아카이브스 협력모델 제안

김재순

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들어가는 글

오늘날 인류문명 발전을 위한 3대 문화창조 기관은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이다. 이 중에서 기록관은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한다는 숙명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에 입각하여 대통령이나 도지사 등 위정자들의 공적 활동에 관한 기록물들을 철저히 보존하고 사후 공개하는 일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시민혁명 과정에서 근대 아카이브스도 탄생하였다. 1918년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 때에는 사회주의체제 아카이브스 모델이 도입되었다. 전자는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공공영역 기록물을 관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후자는 정부 등 공공영역은 물론 시기적으로 전근대 기록유산까지, 현대는 공장 기업소 등 모든 영역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이 각각 전자와 후자의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남한은 광복이후 권위주의 체제 때문에 선진 기록관리 도입이 어려웠다. 최초 여야정권 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정부에서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공공기록물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법 제정이래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정부에서 자체 아카이브스를 설치하였다. 제주도에서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 이유로 국가기록원에서 중앙 아카이브스로 개관한 나라기록관도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정부 아카이브스도 마찬가지이다.

이하에서는 법률제정 이후 왜 기록관리가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정권교체기마다 벌어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선진 아카이브스를 도입해야 하는지 소견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공공기록물법 제정과 한국의 기록관리 주요 특징

1980년 광주 민주항쟁은 민주화 운동의 분수령이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그런데 5공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해야 했다. 전두환 등 책임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도 근거 기록물이 멸실되었기 때문에'기억이 없다...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어야 했다.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는 1969년에 설립되었다. 정부기관의 법령공포 문서, 토지 지적도, 판결문 등 법령과 신분, 재산기록을 주로 보존했다.

다행히 미군정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계받은 문서들도 보존하였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고어투로 작성된 총독부분서, 국한문 혼용체 수기 공문서 등을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역사학전공 고문서 판독이 가능한 전문인력 1명을 최초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연구인력이 차츰 증가하여 2023년 현재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을 합쳐, 정원 350여 명 중 약 150여 명에 이르렀다.

이런 배경에 입사 후 김영삼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 기록보존법 제정을 건의했다. 그

러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1997년 IMF 사태가 일어났고, 그해 말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후보가 당선되었다. 북풍공작문서 파기의혹도 일어났다. 이때 기록보존법 제정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였고, 100대 개혁과제로 받아들여졌다.

1998년도에 법률제정 절차를 거쳐 1999년 1월 29일 김대중대통령이 재가하여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법률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등 선진제도와 과거 사초작성과 실록편찬 등 기록전통의 장점을 모두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기록물 생산의무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무회의 등 정부의 주요 회의기구들은 회의록 생산 및 등록, 보존, 이관을 의무화했다. 또 행사, 토목건축 사업은 사진, 오디오, 영상 등 시청각물 생산을 의무화했다.

둘째는 기록물 등록 제도를 의무화했다. 공무수행 근거기록물은 반드시 공식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셋째는 공무수행은 업무 입안부터 종결까지 과정상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관리하도록 했다. 결재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중간 수정문서들도 훗날 책임소재 규명에 필요한 문서들은 등록하도록 했다.

넷째는 비밀기록 등 비공개기록물은 30년 경과시 등 사후 공개를 의무화했다. 국민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다섯째는 행정부 영역 외에 입법부, 사법부 등과 지자체 기록물, 전근대 기관의 기록물도 마이크로필름이나 디지털자료를 제작하면, 그 사본을 중앙기관에 송부하여 역사적 사실만큼은 종합적으로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는 기록물 무단파기 등 불법행위는 형사처벌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도입했다.

이러한 특징을 갖춘 기록관리제도를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가치중립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집행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국가기록원 전문인력들이 심대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2. 법제정이래 역대정부 기록관리 실태

2-1. 김대중정부 시기(1999~2003)

김대중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행자부 소속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는 행자부 소관사항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회의록 생산의무 사항을 소관부서 의정관실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시행령에 따라 국무회의와 같은 중요한 회의는 국회와 같은 속기록 또는 녹음테이프 생산대상으로 지정해야 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 시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다.

정부기록보존소장은 본부에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회의를 소집했다. 갑론을박 끝에 기획관리실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발언요지만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해 버렸다. 이때 이후 국무회의는 2023년 현재까지도 발언요지만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법률 시행과제는 정부기관별 기록관 설치였다. 총무과 문서계와 문서고, 정부간행물 자료실, 공보관실 사진기록보관실 등을 통합하여 기록관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대다수 기관에서는 정부간행물 자료실 또는 문서고 입구에 "○○○기록관"이라는 간판만 걸어놓은 것으로 대신했다.

기관별 기록관리 정상화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기록물 종류별 보존서고 확충,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열람서비스 공간 확보 등을 시행하는데 소속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은 근본한계를 느껴야 했다. 특히 정부기록보존소장은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임기가 평균 1년, 심지어 2개월만에 교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2-2. 노무현정부 시기(2004~2007)

노무현정부 출범 시, 국가기록원 전문 인력들은 세계일보와 비밀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 기록 관리의 난맥상을 대대적으로 시리즈로 연재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노무현대통령 지시로 정부혁신위원회에 기록관리혁신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행자부에는 기록관리혁신단이 설치되었다. 이 두 개의 조직이 협력하여 기록관리 로드맵을 작성하고, 일련의 개혁을 전개하였다.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들에는 1명 이상 전문 인력이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정부기관별 기록관마다 기록관리시스템이 개발, 보급되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2004년도에 국가기록원으로 명칭개명과 함께 2급 국장급에서 1급 실장급으로 위상을 약간 강화했다. 그러나 소속기관의 근본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노무현정부는 초창기 기록관리 혁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말았다.

첫째는 노무현대통령 임기 말에 대통령기록물이 봉하사저로 유출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이지원시스템의 전자데이터들을 복제하여 봉하사저로 가져간 것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기록물인 NLL대화록 삭제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대화내용을 수록한 NLL 대화록은 평양에서 돌아온 후 이지원시스템을 통해서 공식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직전에 불법적으로 삭제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무단파기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2-3. 이명박정부 시기(2008~2012)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기록관리에 획기적 발전이 있었다.

첫째는 세계 최첨단 보존시설인 나라기록관 개관이었다. 김대중정부 시기인

2002~2003년에 기본계획 수립, 부지확보(구 일해재단 부지), 예산증액(499억→1,421억)을 하였다. 노무현정부에서 공사(2004~2007)를 하였고, 이명박정부에서 2008년 4월 개관하였다. 미국 캐나다 등 최첨단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개관한 나라기록관은 건물규모도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이다.

둘째는 각국의 세계기록유산을 한자리에 모아 국제기록유산 전시회를 개최한 일이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서 박물관 진흥법, 도서관 진흥법과 같은 기록관리 진흥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IMF 상황에서 제정된 공공기록물법에는 기록관리 진흥에 관한 지원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6월 서울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시회는 가히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고, 이 행사로 2016년 예정 세계기록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서 이렇게 소신껏 일하는 전문 인력들이 아래와 같이 시련을 당해야 했다. 국가기록원의 낮은 위상 때문이었다.

첫째는 국가기록원 전문 인력들이 노무현정부에서 과장급인 팀장으로 승진하였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일반 직원으로 다시 강등되었다.

대신 국가기록원 주요직위를 퇴직을 앞둔 행정직들의 부장, 과장, 팀장보직을 배려하는 직위로 악용되어 버렸다.

둘째는 노무현정부시기부터 대통령비서실의 연설기록비서관실이 정치편향적 인사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이명박정부에서도 계속되어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는 점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연설기록비서관실에 파견한 인력도 교체되었다. 이 인력들이 대비실 지휘를 받아 국가기록원 직원인사, 외부 학계인사의 자문위원 위촉 등에 개입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낮은 위상 때문에 가치중립적 객관적 기록관리를 위한 인사운영이 어렵게 된 것이다.

셋째는 이명박대통령도 임기말기에 이르러 노무현대통령이 이지원시스템 데이터를 봉하사저에 유출했듯이 일부 핵심기록물들을 자신의 빌딩으로 유출한 사건이 일어났다.

2-4. 박근혜정부 시기(2013~2017)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동일한 보수당 정권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의 조직이나 전문 인력 인사배치 문제도 이명박정부와 큰 변화가 없었다.

박근혜정부 시기 가장 큰 사업은 2016년 세계기록총회 준비였다. 국가기록원의 전문 인력들은 이 행사를 계기로 진흥법도 제정하고, 나아가 기관의 위상도 선진국가처럼 독립기관으로 강화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2004년도에 세계박물관총회,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도에 세계도서관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계기로 진흥법 제정 등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국가기록원은 2016년에 개최하게 되었으니 박물관보다 15년, 도서관보다 10년이 늦은 것이었다.

국가기록원 전문 인력들은 국무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세계기록총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였다.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행정학 등 각 분야를 망라하여 약 100여 명의 학계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정부는 위원후보 중에서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활동한 현 정부 비판성향 인사들을 모두 배제할 것을 종용하였다. 국가기록원의 전문 인력들은 이러한 요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당시 행안부장관은 담당과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대신 친정부성향 인사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세계기록총회조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행안부 차관이 주도하여 행사만 개최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말았다.

국가기록원의 전문 인력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예컨대 세계기록총회를 앞두고, 나라기록관에는 “기록의 전당”이라는 특별서고를 만들고, 이곳에 국무회의록, 6.25 작전일지 등과 함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 기록물과 5.18 민주항쟁 기록물의 전용서고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당시 장관은 5.18 민주항쟁 기록물을 제외하도록 지시하였다. 세계기록총회 참석자들이 나라기록관을 방문할 것에 대비하여 한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 기

록물로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국가기록원 전문 인력들은 서구의 중앙 및 권역별 아카이브스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제주도 등에 권역별 아카이브스 설치를 구상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국과 일본 등의 국제긴장관계를 고려하여 조선왕조 강화도 사고와 같이 제주도에는 현대 핵전쟁에 대비한 첨단 안전시설을 갖춘 보존시설 설치를 구상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수주 연구단체가 정부 비판성향이라는 이유로 행안부 본부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결국 담당과장이 부산으로 좌천되고 말았다.

2-5. 문재인정부 시기(2017~2022)

문재인정부 등장을 계기로 국가기록원의 전문 인력들은 가치중립적 기록관리와 위상강화 등 많은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초창기에 국회에서 친노 성향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기록관리 개혁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가기록원장 직위를 외부 개방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거 이지원시스템 봉하유출, NLL대화록 삭제 등이 불법적 행위가 아니라고 옹호했던 정치성향 학계인사들이 주로 회의에 참석하고,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곧바로 기록관리혁신위원회가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참여했던 외부 학계인사들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정부영역 기록관리, 대통령기록관리, 적폐청산 등 3개 분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기록관리 적폐청산이 핵심과제였다. 국가기록원 전문 인력들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공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해야만 했다. 그러나 외부 학계인사들은 국가기록원 직원들을 정치편향적 기록관리를 수행한 적폐로 추궁한 것이다.

혁신위원회가 약 1년간 활동을 종료할 즈음. 국가기록원 직제개정, 외부 개방직 응모절차 등을 거쳐 학계인사가 개방형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행정직 출신을 대신하여 처음으로 학계인사가 임기3년 국가기록원장으로 임용된 것이다.

그런데 임용 후에 수행한 업무내용은 어느 정부시기보다 정치편향적 기록관리로 일관하였다.

첫째는 봉하사저에 유출된 이지원시스템 회수작업, NLL대화록 재판증언, 세계기록총회 준비에 참여한 국가기록원 전문인력들을 강등, 좌천시키는 인사조치부터 수행하였다. 그 부당성을 항의한 전문인력들도 모두 적폐공무원으로 간주되었다.

둘째는 임기를 갖 시작한 문재인대통령 퇴임을 대비하여 경남 양산에 개별대통령기록관 신축을 비밀리에 추진한 일이었다. 미국에서는 퇴임 후에 대통령본인과 참모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지어서 국가에 헌납하면, 국립기록청에서 정부예산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개방형으로 임용된 원장은 대통령임기 중 정부예산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 신축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 계획은 문재인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와 함께 중단되었다.

셋째는 국가기록원소속 대통령기록관을 행안부의 별도 소속기관으로 분리해 버린 일이다. 문재인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하여 문재인대통령기록물 비공개보호, 기록물 열람편의 제공 등 다양한 포석을 염두에 둔 조치로 알려졌다. 선진각국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 사법부까지 종합적으로 수집, 보존, 열람 서비스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부 영역 기록물 중 대통령기록물만을 별도로 분리하는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다.

넷째는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보호를 위한 지정기록물에 대해서 열람권자 범위에 대통령유가족 또는 유가족이 추천한 제3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일이다. 이는 노무현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다섯째는 국가기록원의 중앙전산시스템과 서버 등 일체 전산자원을 행안부의 통합전산센터로 이전해 버린 일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기관이 정부청사건물, 통신시설, 방송국, 비행장 등 이다. 세계 모든 국가는 기록관(아카이브스)을 이러한 시설과 원거리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국가기록원 전문 인력들은 성남 나라기록관과 부산 역사기록관, 그리고 제주도에 특수보존시설을 만들어 안전하게 보존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전산자원 일체를 전쟁 시 피폭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이전해 버린 것이다.

3. 국가차원 기록관리 우선적 개혁과제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용된 학계인사는 5년 임기 중 3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시 개방직 국가기록원장 직위에 공모하여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3년 원장으로 승진 임용하였다.

공석이 된 대통령기록관장 직위에는 기록관리혁신위원회에서 소위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인물을 문재인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5년 임기 관장으로 임용하였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재인대통령이 임명한 국가기록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임하였다. 또 대통령기록관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으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 여러 이유로 도중에 물러나게 되었다.

윤석렬정부는 국가기록원장 직위에 다시 과거처럼 행정안전부의 행정직출신을 임명했다.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어떤 인물을 임명할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법 제정 이래 약 25년의 세월이 경과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관리 발전을 가로막은 핵심요인은 국가기록원의 기관위상이 낮다는 점이다. 법령과 제도, 나라기록관을 비롯한 아카이브스 시설과 전산관리시스템 등 인프라는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다.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최우선적 첫 번째 개혁과제는 국가기록원 위상을 미국 등 선진사례처럼 독립기관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기관장 자격요건과 임용절차를 가치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임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문재인정부에서 분리시켜 놓은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과 다시 통합해야 한다. 중앙정부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과 국무총리 등 모든 정부기관 기록물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입법 사법부, 전근대 시기 기록물까지 종합적 수집, 보존,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그동안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거의 모든 대통령기록물이 비공개보호 지정기록물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공식

결재문서는 비밀 등으로 관리하고, 지정기록물 대상은 자유로운 토론, 중간검토 등 과정상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제한해야 한다.

예컨대 NLL대화록의 경우, 노무현대통령이 종결한 대화록 정리본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안 된다. 초안과 중간 수정본은 지정대상으로 비공개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정기록물 등록대상, 등록방법 등 전반적으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수석보좌관 회의록의 경우, 최종 결정된 회의내용은 지정기록물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 회의과정에서 갑론을박 토론내용은 지정대상으로 분류하여 비공개보호가 되어야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하고, 후대 역사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부터 분류, 등록, 이관, 공개활용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선진모델로 다시 개혁해야 한다. 현재 상태는 노무현정부 시기에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다.

다섯째는 국가기록원과 각급기관 기록관의 조직 및 인사배치 기준을 만들어 기록관리 객관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행정직위주의 인사배치, 순환보직 시스템은 기록관리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국가기록원은 전문 인력 대다수가 아카이브스 시설이 아닌 대전본원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기록물을 취급하지 않는다. 중앙 아카이브스 시설로 개관한 나라기록관에는 소수만 배치되어 있다. 이들도 기록물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용역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록물을 직접 취급하는 인력은 비정규직 또는 용역인력이다. 기록물의 단순 목록작성 등 지적 통제에 관한 업무가 극히 부실하다.

이 비효율적 인력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여섯째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999년 법제정 당시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심의 위주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중심으로 제도화했다.

이제는 공공기관 기록관의 업무영역별 전문 인력, 아카이브스(비현용) 업무영역별 전문

인력을 세부화하여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가치중립적 전문 인력의 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제주도 기록관리 우선적 개혁과제

제주도에도 각국의 지방정부처럼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이 3대 문화창조기관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기록관은 제주도 유사 이래 전시대에 걸쳐 모든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열람 서비스하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공공기록물법상 제주도권역에는 중앙정부 소속인 국가기록원 분원과 제주도청 소속 아카이브스가 설립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10년 이전 전근대시기 제주도기록유산은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등에 분산되어 있다. 1894년 갑오개혁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제주도관련 기록물은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 대전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다. 현재도 제주도권역 검찰기관, 경찰기관, 통계청, 관세청 등 중앙정부 소속기관들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다. 제주도청 등 지자체 정부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제주도 기록관 등에 산재되어 있다.

만약 현행 공공기록물법을 개정하여 제주도권역 중앙정부 소속기관의 기록물을 제주도청 소속 기록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육지의 국가기록원 아카이브스 시설에서 보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근혜정부 시기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도 극복하고, 남북한 긴장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에 국가기록원의 권역별 아카이브스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핵전쟁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최첨단 보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 시설과 함께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 국내외 방문객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여

국제수준 전시관도 설치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앞으로 제주도청은 국가기록원과 함께 중장기 발전과제로 제주도청소속 아카이브스 시설과 국가기록원소속 권역별 아카이브스 시설이 상호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박근혜정부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를 더욱 발전시켜 실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단기 발전과제로는 제주도청 소속 기록관에서 제주도에 관한 주제별 디지털 컬렉션 구축작업을 연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중장기 발전과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기관 위상정립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제주도에서는 그 기간 동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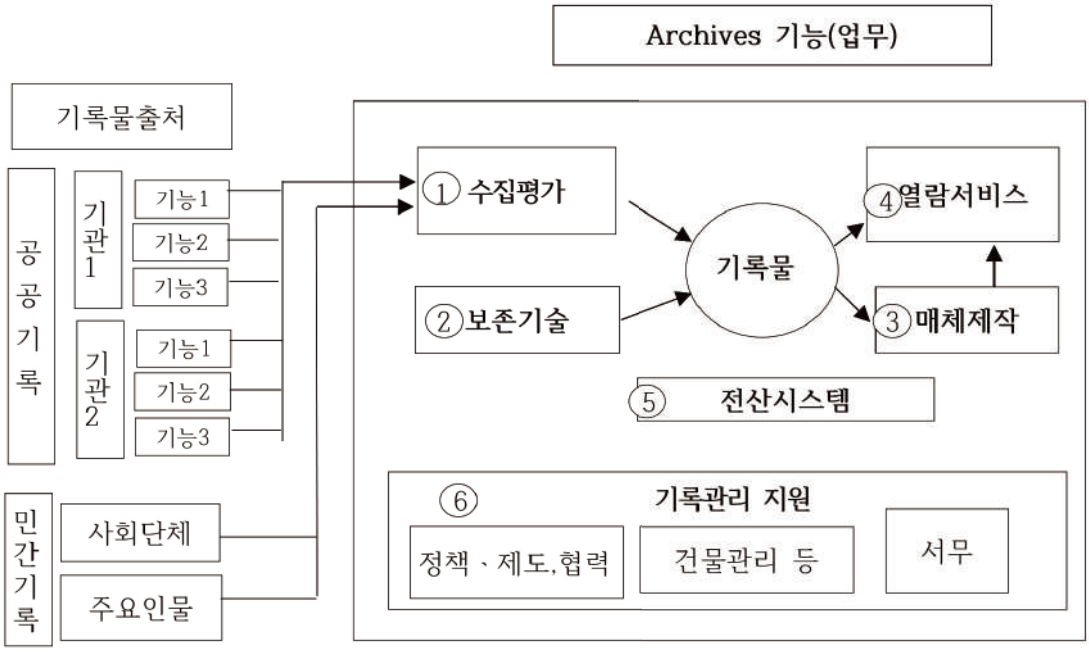
비록 첨단 아카이브스 시설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디지털 환경에서는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조선총독부문서 중 제주도 부군면폐합서류철, 제주도권역 항일운동 판결문과 사건부 등 행형기록류, 서울대규장각과 장서각에 보존된 고지도류,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광복이후 제주도 항만개발 및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문서류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 작업결과물을 제주도홈페이지에 기록관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제주도민은 물론 국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지방정부 아카이브스 설립의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아카이브스건물 확보, 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등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래 도표는 선진 아카이브스 기본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아래와 같이 선진 모델과 함께 이를 위한 아카이브스 건물과 전산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아카이브스 기능구성 개념도 》



2023 제4회 제주학 주간 (2023. 9. 20.~10. 6.)

제주학, 기록으로 새기다

제7회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1부 주제 발표

좌장: 허남춘(제주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1

고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내외의 시선과 기록 전통

고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내외의 시선과 기록 전통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글을 시작하며

제주도와 관련된 고문헌이 적지 않다. 우선 수산(水山)과 애월(涯月)에 세거하던 진주강씨(晉州姜氏)를 비롯하여 조천(朝天)의 곡산강씨(谷山康氏), 납읍(納邑)의 김해김씨, 구좌(舊左)의 동래정씨(東萊鄭氏) 등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이 매우 많다.[1] 이들 자료는 해당 성씨가 제주에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헌들이다. 그렇지만 제주에 대한 내외의 시선을 보여주는 문서는 위의 자료집에는 많지 않다.

제주도에 대한 내외의 시선을 잘 보여주는 자료는 제주교육박물관에서 발간한 『제주의 고문서』라고 생각된다. 이 책에는 제주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중 고문서를 이미지와 함께 원문을 정서하고 아울러 번역까지 함께 수록해서 제주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

1) 『고문서집성』 114에는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여러 성씨의 고문헌이 소개되어 있다.

고 있다. 필자도 이에 근거해서 먼저 외적인 시선을 살펴보고 이어 내부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모든 자료가 그러하듯 고문헌 역시 연구 자료로서의 한계가 분명하다. 현존하는 고문헌이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 한자를 터득하고 실생활에서 이를 구사하는 계층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주도에서 한자를 알고 이를 통해 당시의 상황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양반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기록한 것은 자신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이기에 이것만을 가지고 당시의 제주도을 복원한다면 실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균형잡힌 시각을 확보하려면 고문헌의 수집과 정리 이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외적 시선:
감시와 통제

제주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왕래가 쉽지 않고 또 나름대로 독특한 풍속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은 특히 고문서에 잘 드러나 있다. 우선 섬에 출입하는 선박과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안전하게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각 포구마다 관리를 두어 왕래하는 선박과 사람을 단속했다. 다음의 첩정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 조천진(朝天鎭) 치총(雉摠)이 첩보(牒報)합니다. 목포(木浦)의 사판사공(私販沙工) 김인원(金仁元)의 선척[船隻]이 어제 저녁물[夕水]에 소안도(所安島)에서 출발하여 오늘 새벽 이 포구에 들어와 정박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서울기별[京奇]은 없는 까닭에 포구에 들어온 사실을 알리는 문서[入浦文書]을 예에 따라 수정해서 보냅니다. …
>
> 위의 첩정을 겸찰리사(兼察理使)에게 올립니다.

1893년(고종 30) 정월 15일. 치총(雉摠) 강(姜) 압(押)

(처분) 문서를 받았다. 15일[2)]

위 문서는 1893년 정월 15일에 조천진에 배치되어 있던 치총이 겸찰리사에게 제출한 보고서로, 당일 새벽에 목포의 사판사공 김인원이 소안도를 거쳐 조천진에 들어온 사실을 알리고 있다. 포구에 선박이 들어오면 조천진에서는 치총이 그 선박에 실려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조정에서 보낸 명령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문서의 명칭은 '입포문서(入浦文書)' 즉 선박이나 인물이 포구에 들어온 사실을 조사하여 알리는 문서인데 하관(下官)이 상관(上官)에게 보고하는 문서의 서식 즉 첩정(牒呈)을 따랐다. 사판은 개인적으로 판매나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해상에서는 대부분 배를 모는 사공이 이를 겸해서 했기 때문에 사판사공이라 불렀다. 이들은 물건이나 사람을 운송할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 보내는 명령서도 전달했는데 이 명령서를 통칭 '경기(京奇)' 즉 서울소식이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인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1893년(고종 30) 3월 4일에 조천진의 조방장이 겸찰리사에게 보고한 것이다.

조천진(朝天鎭) 조방장(助防將)이 첩보합니다. 이 포구의 사판사공(私販沙工) 김윤일(金允日)의 선박[船隻]이 어제 저녁물에 소안도에서 출발하여 오늘 낮물[午水]에 이 포구에 들어와 정박했습니다. 그런데 경상(京商)은 본댁의 서궤(書櫃) 한 개와 백청(白淸) 한 항아리[項]를 보냈으며 병영(兵營)의 비밀관문[祕關] 1 장을 해남(海南)의 장교(將校) 서경재(徐京在)가 지니고 왔습니다. 입송문서(入送文書)를 작성해서 올립니다. …

위의 첩정을 겸찰리사(兼察理使)에게 올립니다.

---

2) 『제주의 고문서』, 82~83쪽.

1893년(고종 30) 3월 4일. 조방장 고(高) 압(押)

(처분) 문서를 받았다. 5일[3]

조천진에 배치되어 있던 조방장이 겸찰리사에게 올린 보고서로 조천진 소속의 사판사공 김윤일의 선박이 전날 소안도에서 출발해서 당일 낮에 포구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당시 그 배에는 찰리사의 본댁에서 보낸 서궤 하나와 백청 한 항아리가 있었다. 당시 찰리사는 이규원(李奎遠)으로 무과에 급제한 뒤 1881년(고종 18) 울릉도검찰사가 되어 섬을 시찰하고 돌아와 울릉도를 포기하지 말 것을 상주(上奏)했으며[4] 1884년에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 수구파정권이 들어서자 함경남도병마절도사·제주목사 겸 찰리사 등을 지냈다. 제주목사 겸 찰리사로 부임한 그는 집무를 하는 틈틈이 책을 읽으려 하니 서궤가 필요했다. 그래서 집에 연락해서 색깔이 희고 품질이 좋은 꿀 한 단지와 서궤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김윤일의 선박을 통해 배달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해남의 장교 서경재가 들어온 일이었다. 그가 제주에 들어온 것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병영에서 전달하는 비밀관문을 지참하고 온 것이었다. 극히 보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명령서이기 때문에 직접 군관이 이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다. 여기에는 비밀 관문에는 은밀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등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보통 주요 인물의 체포 등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이처럼 입항하는 선박의 왕래 뿐만 아니라 출항하거나 혹은 회항하는 선박에 대한 보고도 많았다. 아래의 문서는 조천진의 조방장이 1893년(고종 30) 10월에 선박의 회항과 관련하여 겸찰리사에게 보고한 것이다.

---

3) 위의 책, 84~85쪽.

4) 그는 당시 울릉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기록한 『울릉도검찰일기』를 남겼다.

조천진(朝天鎭) 조방장이 첩보합니다. 지금 받은 전령에 따라 추자도(楸子島)로 건너가는 것은 이 포구의 황봉길(黃奉吉)의 선박으로 정하(여 출항하)며 (날씨가) 며칠 동안 순탄하면 화북포(禾北浦)로 돌아오기 위해 이러한 까닭을 말씀드립니다. …

위의 첩정을 겸찰리사(兼察理使)에게 올립니다.

1893년(고종 30) 10월 12일. 조방장 고(高) 압(押)[5]

조천진의 조방장이 겸찰리사에게 올린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조방장은 추자도로 보낼 선박의 주인을 황봉길로 선정하고 이곳에 갔다가 날씨가 계속 좋을 경우 곧바로 화북포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추자도는 지리적 위치로 보면 제주와 육지를 왕래하던 선박들이 이용하던 중간 거점이고 풍랑이 세게 불 때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장소로 활용되어 왔다. 현재의 행정 구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지만, 주민의 생활상이나 전통 민가의 구조 등을 살펴보면 전라도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는 오랫동안 전라도 영암군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잠깐 완도군으로 이관된 후 최근에는 제주도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만 가지고는 조방장이 왜 황봉길의 선박을 추자도로 보냈는지 알 수 없다.

제주도에서는 타지로부터 들어오는 물건과 인물에 대한 통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곳에서 기르던 가축이나 곡물까지도 통제되는 일이 많았다. 제주에서 생산된 곡식이나 그곳에서 길러지는 가축에 대해서도 통제가 많았다. 다음은 1898년(광무 2) 9월 27일에 서귀포진 조방장이 군수에게 제출한 첩정이다.

서귀포진 조방장이 첩보합니다. 어제 어떤 육지인[陸人]이 소 7마리를 난잡하게 진저리(鎭底里)로 몰고 내려왔는데 토우(土牛)와 토곡(土穀)은 외지인에게 방매하는 것을 금단하는 명령이

5) 위의 책, 94~95쪽.

엄중할 뿐아닙니다. 하물며 소의 거래는 소중하므로 범범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소의 주인 김순조(金順祚)와 소 7마리 일체를 잡아서 올려보내고 이러한 경위를 보고합니다.… 위의 첩정을 군수에게 올립니다.

1898년(광무 2) 9월 27일 조방장 문(文) 압(押)[6]

제주도에서는 원래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위주였다. 그것은 제주도의 토양이 대부분이 물빠짐이 심한 현무암이라서 벼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당연히 쌀이 대단히 귀했으며 보리나 밀 혹은 잡곡의 생산도 그다지 풍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곡식은 외지로 반출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항상 수요가 부족했던 곡식이 만일 외지로 반출된다면 제주도 거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점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농사를 짓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 농우(農牛)였다. 농우 한 마리가 건장한 농부 10명 이상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초기부터 농우에 대한 도살을 국법으로 엄격히 금지했다. 더군다나 제주도와 같은 곳에서는 농우에 대한 의존도가 육지에 비해 훨씬 심했다. 따라서 농우 판매를 엄격히 통제했는데 어느 한 육지인이 섬에 들어와 7마리나 되는 농우를 몰래 사서 진저리로 몰고 내려왔다. 이러한 사실을 목도한 서귀포진의 조방장은 육지인에게 소를 판매한 김순조를 체포하고 팔았던 7마리의 소를 압수하여 군수에게 보냈다.

제주도는 농우나 말 이외에도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개까지도 철저하게 통제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1869년(고종 6) 5월에 별방진의 조방장이 관아에 제출한 서목(書目)을 보면 알 수 있다. 서목은 보고서의 하나로 단순하거나 사소한 일을 보고이거나 혹은 보고할 내용이 비록 장황하지만 상관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6) 위의 책, 98~99쪽.

다. 다음의 서목은 내용으로 보아 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별방진(別防鎭) 조방장 서목
>
> 즉시 명령에 따라 몸소 우도에 가서 명령을 널리 전했으며 내려주라고 명령한 닭 두 마리를 우도의 호계(戶鷄) 중에서 내어주고서 손가락을 자른 아동은 고인달(高仁達)로 이름지어준 경위를 보고합니다.
>
> 1869년(고종 6) 5월 4일. 조방장 고(高) 수결
>
> 관(官) 압(押)
>
> (처분) 마땅히 전보(轉報)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라.[7]

병든 아버지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고인달은 우도에 살았는데 겨우 9살이었다. 이러한 그의 행실은 곧바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제주도에까지 알려지자 제주목사는 별방진의 조방장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우도로 건너가 효행을 칭찬하고 우도에서 기르던 닭 2마리를 상으로 지급하며 이름을 인달로 명명해서 부르도록 지시했다. 그것은 아마 9살의 우도 어린이가 그때까지 이름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촌스러워서 그의 효행이 드러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이때 상으로 닭 두 마리를 지급했는데 이것은 우도의 호에 배당되어 기르던 것이므로 목사의 관리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는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매우 친숙한 가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에게 물릴 경우, 이 병이 사람에게도 전염되는데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다. 전통적으로 이 병에 감염된 개를 광견(狂犬), 악견(惡犬) 또는 제견(猘犬)이라 불렀는데 사람이 이에 물릴 경우 같은 병으로 사망할 수 있기

7) 위의 책, 126~127쪽.

때문에 감염된 개는 모두 포획해서 죽였다. 다음의 고목(告目)을 살펴보면 제주도에서는 광견병이 걸린 개들을 모두 도살토록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목은 마을의 이장이나 동장이 수령에게 보고하는 문서 중의 하나이다.

보고서[告目]

지금 받은 전령에 따라면 저희 마을[里] 강항연(姜恒連)의 개[狗]를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중 어느 날에 도살(屠殺)했는지를 기어코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의 항연의 개 한 마리는 저번 달에 도살한 까닭에 (도살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남은 개가 더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전에 사나운 개[惡狗]에 대해 조사하여 대장(臺帳)을 만든 후 탐지해보니 (누락된 사나운 개가) 또 한 마리가 있어서 (그 개마저) 도살할 것을 재촉했습니다. 지금 전령이 내려 진 후 (강항연의 개에 대해) 묻고 조사해 보니 8일에 도살한 것이 분명하고 (현장에서 이를 살펴본) 증인[證看]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나머지 사나운 개에 대해서도 장부를 작성한 후 오늘까지 잡히는대로 도살해서 남아있는 사나운 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어느 마을, 어느 소유자의 개인지 알려지지 않은 미친개[猘犬] 3마리가 갑자기 뛰어들어 발광(發狂)할 때, 한 어린 아이가 개에 물렸으니 하늘이 어떻게 합니까 때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경위를 알려드립니다.

기해년(己亥年) 7월 12일. 서홍리(西烘里) 기찰장 조(趙) 압(押)[8)]

집에서 기르던 개가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하면 주인은 광견에 감염되었다고 판단하고서 도살을 했다. 그런데 이 병은 개나 고양이 사이에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병든 개를 일찍 처치하지 않으면 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이러한 병이 유행하면 관에서는 훈령을 내려 개들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여 관리장부를 만들어 하나하나 처치 여

8) 위의 책, 170~171쪽.

부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서홍리에서 이러한 명령이 전달되어 광견병에 전염된 것으로 판단되는 강항련의 개를 도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실행에 옮기고 또 대장을 만들어 이러한 사실을 기록했다. 그런데 어느 마을 어느 소유의 개인지 알 수 없는 개 3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어린애를 무는 일이 일어났다. 기르던 주인집을 떠나 살게 된 도둑견 혹은 일종의 들개로 추측되는데 이러한 개가 갑자기 나타나 유아를 물자 서홍리의 기찰장은 이러한 사실을 수령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목을 통해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관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매우 촘촘한 감시와 보고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조방장이 근무하는 진(鎭)에서는 포구 통행인의 입출을 철저히 관리했지만 진이 설치되지 않은 조그마한 포구나 마을에서는 기찰장이 근무하며 입출을 관리하고 이러한 사실을 상부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조방장을 통해 수령에게 보고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첩정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외도의 기찰장은 애월진 조방장을 통해 겸찰리사에게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애월진(涯月鎭) 조방장이 첩보합니다. 외도(外都)의 기찰장(機察將) 고종환(高宗煥)의 보고[告目] 안에 "이 포구의 사판사공 현기숙(玄己淑)의 선박이 어제 소안도(所安島)에서 출발해서 오늘 아침물에 이 포구에 들어와 정박했습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조사해보니 원래 서울소식은 없는 바 승선한 사람과 배짐에 대한 보고[人物與卜物記]를 예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첩보합니다. …
>
> 위의 첩정을 겸찰리사(兼察理使)에게 올립니다.
>
> 1893년(고종 30) 4월 9일. 조방장 고(高) 압(押)
>
> (제사) 문서를 받았다. 13일[9]

9) 위의 책, 86~87쪽.

외부인들이 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작은 포구로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때에는 그곳에 있는 기찰장이 선박에 승선한 인원이나 적재한 물건 등을 낱낱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조방장이 있는 진에 보고해야 했으며 조방장은 다시 이를 겸찰리사에게 전달했다. 외도 기찰장 고종환은 외도의 사판사공 현기숙의 배가 소안도를 거쳐 외도에 들어 왔는데 서울소식은 없고 승선했던 사람과 적재된 배짐에 대해 문건을 작성해서 조방장에게 보고했으며 조방장은 전례에 따라 겸찰리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포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나 물건 등의 입출입을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상납하기 위해 선박 등을 동원하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첩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첩정은 1893년(고종 30) 4월에 화북진 조방장이 겸찰리사에게 제출한 것이다.

> 화북진(禾北鎭) 조방장이 첩보합니다. 지금 받아본 훈령의 사연에 따르면 이 포구의 공마(貢馬)를 받들어 싣기에 적합한 문응조(文應祚)의 선박은 즉시 조천포로 돌아갔으며 조천포의 김완남(金完南)의 선박은 이미 이 진포에 있습니다. 공북(拱北)의 선주(船主)들은 이 배를 세내어 공마를 실었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단속하고서 이러한 사연을 보고합니다. …
>
> 위의 첩정을 겸찰리사(兼察理使)에게 올립니다.
>
> 1893년(고종 30) 4월 29일. 조방장 고(高) 압(押)
>
> (제사) 알았다. 5월 1일.[10]

공마(貢馬)는 원래 중국에 공납하는 말인데 세공마(歲貢馬) 등 매년 바치는 말과 식년공마(式年貢馬)와 같이 3년마다 바치는 말로 구분이 되었다. 이는 고려시대에 원(元)나라가 침입

10) 위의 책, 90~91쪽.

하여 정기적으로 말의 공납을 요구하자 제주도 목장에서 길러 정기적으로 헌납한 데에서 유래했다. 제주목사의 임무 중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공마를 제때 배로 실어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마를 해야 할 때가 되면 이를 운송할 선박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위의 화북진 조방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언제든지 운송할 수 있도록 선박의 운행이나 정박 상황에 대해 조방장이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박이 대기중일지라도 선주나 사공이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동태 파악도 매우 중요했는데 아래의 첩정을 살펴보면 잠시 자리를 이탈한 선주의 동태도 조방장이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조천진의 조방장이 첩보합니다. 지금 도착한 훈령의 내용에 따르면 선주 백수호(白守浩)를 (찾아) 보내려 하나 동촌(東村)으로 출타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진졸(鎭卒)을 보내어 즉시 데려온 후 배 위의 집물을 미리 단속하였습니다. 즉시 보낼 뜻으로 그간 경위를 먼저 보고합니다. …
>
> 1893년(고종 30) 10월 13일. 조방장 고(高) 압(押)[11]

선주인 백수호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겸찰리사는 조천진 조방장에게 그의 행방을 즉시 찾아 보고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방장이 그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그가 잠깐 이웃마을인 동촌으로 출타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즉시 진졸을 파견하여 백수호를 찾아서 데려온 후 배 위의 집물을 단속하고서 그 경위를 겸찰리사에게 보고했다.

공마를 제대로 관리하고 제때 운송하는 것은 제주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공마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조처를 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첩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첩정은 1889년(고종 26) 6월에 조천진의 조방장이 겸방어사에게 제출

11) 위의 책, 96~97쪽.

한 것이다.

> 조천진의 조방장이 첩보합니다. 여러 가지 진상마(進上馬)는 지금 아무 일이 없으나 오늘 묘시(卯時, 오전 5시에서 7시) 가량 3소(所)의 목자(牧子) 권인복(權仁福)이 보내온 보고에 "이 목장의 공마(貢馬) 가운데 유웅마(騮雄馬) 1필(匹)이 지난 밤에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오라 했더니 과연 보고한 바와 같았습니다. 죽은 말에 대신할 말은 해당 목장에 있던 보마(補馬)로 충당해서 세우고 충당하고 그간의 경위를 첩보합니다. …
>
> 위의 첩정을 겸방어사(兼防禦使)에게 올립니다.
>
> 1889년(고종 26) 6월 9일. 조방장 박(朴) 압(押)
>
> (제사) 알았거니와 위양(喂養) 등의 일은 특별히 더 당부하며 죽은 말의 가죽은 즉시 올려보내고 장감(場監)은 차원소(差員所)에서 알아서 대령시킬 일. 9일.[12]

진상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나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많았다. 유웅마 한 마리가 갑자기 병이 나서 새벽에 죽고 말았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기르는 말 즉 보마가 있었기 때문에 조천진 조방장은 죽은 유웅마 대신 보마로 대체하고 이러한 사실을 겸방어사에게 첩정으로 보고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를 매매할 때 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 신고를 하면 입안이라는 문서를 발급해주었다. 입안은 매매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관에서 공신력있게 증빙해주는 절차였다. 그런데 1852년(철종 3)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壬子新定通式』은 제주도가 얼마나 감시와 통제가 잘 되는 사회였나를 보여주는 자료로 판단된다.

---

12) 위의 책, 80~81쪽.

대체로 토지의 매매는 가격을 결정하여 문권을 만들 때, 먼저 전주(田主)가 거주하는 동중(洞中)의 경민장(警民長)으로 수보(首保)를 세우고, 다음으로 해리(該里)의 농감(農監)을 증인(證人)으로 삼아서 권미(券尾)에 성명(姓名)과 착함(着銜)을 갖추었다. 먼저 본동(本洞)의 호표(號標)를 날인하고 다음으로 영자방표(永字方標)를 찍어서 문권을 만든다. 영원히 팔아버리면서 작성한 문권(文券)은 30일이 지나면 환퇴(還退)를 허락하지 않는다. 각 리(里)에서는 매년 전부(田簿) 1책을 만들어 두고 경민장이 이를 관장한다. 본 리(里)의 토지를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당해 경민장과 농감이 문권을 작성하여 발급하고 즉시 이 책에 기록한다. 밭을 산 자는 백지 1장을 바친다.[13]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나 노비를 매매할 때 관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토지의 경우가 그러했는데 입안을 발급받을 때 일종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 부담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잘 도망가는 노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안을 발급받았지만 토지는 매매당사자끼리 만나 문서를 주고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마을의 행정적 책임자인 경민장을 세우고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농감을 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각 마을의 도장과 영자방표도 날인토록 했다.

실제로 다음의 매매명문을 살펴보면 영자방표는 찍지 않았지만 경민장이 증인으로 참여하고 또 마을의 도장도 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매매문서는 1904년(광무 8) 1월에 강주팔이 이재연에게 보리밭을 팔면서 작성해 준 것이다.

1904년(광무 8) 갑진(甲辰) 정월 초9일 이재연(李在連)에게 주는 명문(明文)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 흉년을 당하여 살 방법이 없는 까닭에 위의 사

13) 고창석, 『제주도고문서연구』, 세림, 15쪽.

람에게 돈 85냥을 빌려 사용한 후 이를 갚을 방법이 없어서 장동산(長洞山) 자락의 보리 심는 밭 2말 5되지기, 사방으로 말하면 동쪽은 강기길(姜己吉)의 밭, 서쪽은 강응보(姜應甫)의 밭, 남쪽으로는 강진길(姜辰吉)의 밭, 북쪽으로는 임무봉(任戊逢)의 밭 4곳의 경계가 분명한 밭을 영원히 팔되 본문기(本文記)를 아울러 주니 뒷날 만일 다른 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할 일이다.

대포(大浦)

경민장(警民長) 이(李) (수결), 전주(田主) 강주팔(姜周八) (수결)

대포(大浦) 필집 이원민(李遠敏) (수결)[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제주도는 포구를 통한 입출입은 언제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으며 왕실에 진상하거나 중국에 바쳐야 하는 말 등은 모두 관리의 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식량이나 기르는 가축을 외지로 거래하는 것 등도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토지를 팔고살 때에도 마을의 행정책임자와 실무자를 보증인이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거래에 개입하도록 했따. 제주도의 거주민이 왜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3. 내적 시선:

유교 이념의 내면화

전통시기에 제주도민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국가의 이념인 유교에 충실히 따르지 않고 전래되어 오던 풍

14) 위의 책, 316쪽, 명문 (61).

속을 강고히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1629년(인조 7)에 조정에서는 제주민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출륙(出陸) 금지령을 내렸다. 출륙 금지령은 그후 약 200년간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인들은 더욱 고립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섬 고유의 언어·풍속·문화 등은 그 독자적 특색이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를 특색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개화 혹은 미문명화 상태를 강고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어떻게든 유교화하려 강제했다.

숙종조에 제주목사로 임명되었던 이형상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제주목사로 재임했을 때 그려진 탐라순력도는 조선후기 제주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그 중 '건포배은(巾浦拜恩)'은 제주도에 당시 재임하고 있었던 목사와 품관 등 3백여 명이 12월 20일에 조정을 향해 배례하고 그 이튿날에 읍성 밖 신당(神堂)들을 불태우는 장면이 함께 묘사되어 있다. 신당이라는 무속 공간은 유교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목사 이형상의 입장에서는 혁파 대상이었다. 하지만 거친 바다와 잦은 재변(災變)이 일상이었던 섬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기원하는 곳이었는데 '건포배은'의 검은 잿빛으로 불타는 신당과 그 모습을 뒤로하고 조정에 배례를 올리는 목사 일행과 제주 섬사람들의 모습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사회의 거리가 느껴질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주상황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유교가 내면화되고 있는 모습을 앞에서 잠깐 살펴본 고달인(高達仁)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우도의 삼소임(三所任)이 제주목사에게 제출한 서목을 살펴보자. 삼소임은 동장(洞長), 경민장(警民長), 존위(尊位)를 일컬었는데 이들은 우도의 행정적 책임자 겸 실무자였다.

우도(牛島) 삼소임(三所任) 서목(書目)

본리(本里) 고종진(高宗辰)의 아들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먹인 일이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1869년 5월 4일 동장(洞長) 김(金) 수결, 경민장(警民長) 고(高) 수결, 존위(尊位) 한(韓) 수결[15)]

우도의 삼소임은 고종진의 아들이 손가락을 잘라 병을 앓고 있는 그의 아버지에게 먹여 소생시키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다른 문서에 의하면 고종진의 아들은 겨우 9세로 향교나 서당을 다니며 유교의 윤리를 배운 바가 없었다[無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병들어 목숨이 위태롭자 손가락을 잘라 연명시켰다. 이러한 일이 나름 문명화된 제주가 아닌 외딴섬 우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곳의 삼소임은 이러한 사실을 연명하여 수령에게 보고를 했던 것이다.

그러자 제주목사는 어린 아이의 이러한 행동을 매우 가상하게 여겨 조방장을 직접 파견해서 이러한 행동을 크게 치하하고 포상으로 닭 2마리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인에 도달했다는 의미에서 아이의 이름을 달인(達仁)으로 부르도록 지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16)]

제주목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의 집안에 그동안 부과되었던 호역(戶役)과 신역(身役)을 모두 면제해주도록 조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 즉 완문을 작성해 주었다. 그때 작성해 준 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완문

이 완문을 작성해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찍부터 듣건대 (맹자가 진심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해도 그의 어버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본디 타고난 선천적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맹자는 이) 한 마디 말로 백대의 스승이 되었다. 여기 9살의 고종진(高宗辰) 아들은 섬 중에서도 아주 궁벽한 섬인 우도에서 태어났으나 어떻게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천륜(天倫)이 있었던지 13세의 나이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여름에는 베개를 부채질하여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제 몸으로 잠자리를 따뜻하게 하는 정성을 다하였다. 그 아비의 거의 끊어질 뻔한 실오라기 같은 목숨이 손가락 피의 한 모금에 다

15) 위의 책, 124~125쪽.

16) 위의 책, 126~127쪽.

시 이어졌다. 칼에 베인 상처의 흔적이 섬뜩한 데, 마치 눈으로 본 것 같이 고을의 첩보나 마을의 보고에서 똑 같이 같은 말을 하였으니, 진실로 이른바 어린 아이가 어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본디부터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인 것이다.

하물며 섬사람들은 소송하기를 좋아하여, 본래의 기량이 인륜의 상도(常道)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닌 것이 없었다.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며 명리를 추구하여 여기저기에 빌붙어 이익을 꾀하던 가운데 효자의 첩지(牒紙) 하나가 나오게 되었으니, 참으로 이는 관인을 맡아 업무를 처리한 뒤의 첫 정사이다. 그 권장하고 격려하는 방도에 있어서 마땅히 특이한 행실을 정표하는 은전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도 동네에 명령을 내려 당부하는 것이다. 이 아이는 보고한 바에 의하여, 이름을 달인(達仁)으로 지었으니 뒷날 신역(身役)과 호역(戶役)을 전례에 따라 면제해 줄 뜻으로 이에 완문을 만들어 준다.

1869년(고종 6) 6월 일.

목사(牧使) 압(押)[17]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비록 천륜이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현하는 것은 오랫동안의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기 어려웠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더더욱 강조했던 것인데 향교나 서당을 다니며 이를 배우지도 않은 9세의 아동이 이를 실천했으니 제주목사로는 이를 모범 사례로 지정해서 더욱 널리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하하고 포상하며 개명토록 하고 나아가 신역과 호역까지 면제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들도 낳지 못한 채 일찍 사망했다. 그러자 집안에서는 그의 조카를 양자로 세우고 호역과 신역의 면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문의 입장에서는 효자가 배출된 집안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특권을 이어가려는 조처였지만 관의 입장에

17) 위의 책, 188~189쪽.

서도 굳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탄원서를 보면 알 수 있다.

> 하도리(下道里) 고준경(高俊京)
>
> 이와 같이 삼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형 달인(達仁)이 저의 아버지 병이 위독했을 때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9세의 아동으로서 손가락을 잘라 실낱같이 거의 끊어져가는 아버지의 목숨을 연명하도록 했으니 이는 형의 지극한 효성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과 고을에서 보고가 감영에 이르러 이 효행을 포양하는 완문이 발급되었습니다. 호(戶)에 부과되는 잡역(雜役)은 관례에 따라 면제되었습니다. 저의 형이 후사(後嗣)를 잇지 못하고 일찍 사망해서 저의 아들이 마땅히 형의 후사를 받들고 있는데 만일 뒤따른 처분이 없다면 반드시 효자 가문으로서의 영예[孝蔭]가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마을의 보고서와 고을의 보고서 및 발급했던 완문(完文)을 첨부하여 우러러 하소연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자세히 살피신 후 뒷날 참고하기 위해 입안(立案)을 발급해주시 바랍니다.
>
> 성주께서 명령하실 일입니다.
>
> 사도주 처분
>
> 1889년(고종 26) 8월 일.
>
> 사(使) 압(押)
>
> (처분) 이와 같이 탁이(卓異)한 효행을 들으니 매우 가상하다. 그 양자(養子)에게 부과되던 잡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뜻으로 완문을 발급하라. 18일. 형리(刑吏).[18]

고달인의 아우 고준경은 그의 형이 효자로 알려지게 된 과정과 그 이후 후손도 낳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과정을 수령에게 알리고 효자 가문으로서의 영예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령은 이 탄원서를 읽고 양자에게 부과되었던 잡역을 일체 부과하지 말

18) 위의 책, 228~229쪽.

고 이러한 특혜를 인정하는 완문을 발급해주도록 명령했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제주도민은 유학 이념을 널리 받아들이고 유교화되었다는 점을 여러 측면에서 강조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호적에 이러한 점이 부각된다. 육지의 경우 유학(儒學)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르는 특별한 명칭이 호적에 등장하지 않는다. 대개 양반들은 대부분 유학의 이념에 충실했을 것인데 이들 중 특별한 직역이 없는 사람들은 호적에서 유학(幼學)이라 칭했다. 설령 실제로 향교에 등록된 유생 즉 청금유생(靑衿儒生)이라하더라도 호적에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관례였다. 또 유향소에서 좌수나 별감 등을 역임하거나 향교에서 장의(掌議) 등에 임명되었더라도 이를 호적에 밝히지 않았다. 이에 비해 제주도에서는 직역에 청금유생, 청금훈장, 유향별감 및 장의 등을 밝히는 사례가 많았으며 나아가 향시에 합격한 사실도 밝히고 있다. 이는 다음의 준호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준호구는 1867년(고종 4) 3월에 제주목에서 발급한 것이다.

> 1867년(고종 4) 3월 일. 제주목
>
> 정묘년(丁卯年)에 작성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살펴보니, 좌면(左面) 세화리(細花里) 제 3통(統) 1호(戶)에 사는 청금훈장(靑衿訓長) 오장준(吳長俊) 나이 61세, 정묘생(丁卯生) 본관은 군위(軍威), 그의 아버지 청금(靑衿) 종환(宗煥), 할아버지 청금 성찬(聖燦), 증조할아버지 청금 경청(景淸), 외할아버지 유향별감(留鄕別監) 김상진(金相振), 본관은 광주(光州), 어머니 김씨 나이 82세, 아내 현씨(玄氏), 나이 61세, 정묘생, 본관은 연주(延州), 아버지 향시에 합격한 유향좌수[鄕解留鄕座首] 기범(箕範), 할아버지 청금 상호(相豪), 증조할아버지 청금 수□(遂□) … 거느린 식구 아우 청금 언준(彦俊), 나이 49세 기묘생(己卯生), 아들 청금 창원(昌元) 나이 37세 신묘생(辛卯生), 며느리 정□□(이하 생략)[19]

주호인 오장준은 청금훈장, 그의 선조들은 모두 청금(유생), 외할아버지는 유향별감, 장

19) 위의 책, 206~207쪽.

인은 향해유향좌수였다. 청금훈장은 향교에서 훈장으로 유생들을 교육시키는 직책이며, 청금은 향교에 등록되어 있는 유생을 뜻하고 유향별감은 유향소에서 별감으로 재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해유향좌수는 과거 초시에 합격한 유향좌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직책 혹은 직역은 육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인데 모두 유교와 관련이 깊다. 제주도에 호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이 얼마나 유교와 관련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직역이나 직책을 삼았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향교에 유생으로 등록하여 수학하는 것을 거재(居齋)한다고 했는데 거재생(居齋生) 중의 대표자 즉 접수(接首)를 뽑아서 수학과 관련된 모든 일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 접수를 혼자서 오래 맡을 수는 없었다. 적당한 시기에 거재생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접중(接中)에 사직서를 내고 물러나야 했다. 다음은 오창권이 접수를 그만두기 위해 1898년(광무 2) 6월에 접중에 올린 청원서이다.

> 황공하오나 살펴주십시오. (제가) 삼가 외람되이 접(接)의 반열(班列)에 끼인 지 이미 여러 해 되었습니다. 전후로 거재(居齋)하면서 힘써 일하지 않고 시일만 끌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여러 군자들께서 한편으로 보살피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난을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름 모임 때 아무쪼록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더위가 매우 심하고 집 아이가 병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저도 설사를 해서 나아가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청원하니 매우 부끄럽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 군자들께서는 이 단자의 내용을 너그러이 용서하셔서 사연을 갖추어 감영에 보고해서 (후임) 접수(接首)를 결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齋)의 모습이 온전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
> 향교 접중(接中) 여러분들게
>
> 1898년(광무 2) 6월 12일. 접말(接末)[20] 오창권 정단(呈單)[21]

---

20) 접수인 오창권이 스스로 접말이라 칭한 것은 겸칭이다.

21) 위의 책, 246~247쪽.

또 향교의 훈장을 맡았을 때에도 이러한 점은 마찬가지였다. 훈장이 명예스러운 직임이라해서 적당한 시기가 오면 사임해야 했다. 다음은 1899년(광무 3) 4월에 오창권이 제주목사에게 제출한 것이다.

> 향교 훈장(鄕校訓長) 오창권(吳昌權)
>
> 이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재차 우러러 하소연해서 겸사(兼使)를 번거롭게 해드려 지극히 황송합니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제가 사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읍(城邑)에 가깝지 않으며, 몸에 병이 또 도져 산을 넘고 물을 건너기에 지극히 곤란합니다. 이에 감히 사사로운 정을 말씀드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향교 훈장을) 교체시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모두 다 편안하도록 명령해주시기 바랍니다.
>
> 명령하실 일입니다.
>
> 겸사(兼使) 처분
>
> 1899년(광무 3) 4월 일
>
> (처분) 허락해주라. 14일.[22]

그런데 호적을 살펴보면 향교의 훈장, 장의 혹은 유향소의 좌수나 별감라는 직역이 나올 뿐아니라 그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의가 1876년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으며 별감도 1885년부터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23]

이처럼 유교 이념의 내면화는 조상들이 사망한 후 묘소를 쓰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섬지방에서는 식수의 문제로 조상이 사망하면 땅에 묻지 않고 수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제주도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타의 섬과는 크게 다른 점이

---

22) 위의 책, 236~237쪽.

23) 허원영, 「19세기 제주도 호적에 나타난 직역변동과 부세운영」, 『제주도연구』 23, 309쪽 참조.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이라는 커다란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 장사를 지내도 여타의 섬처럼 식수가 오염되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현재 남아 있는 탄원서를 보면 산송이 매우 많다. 아래의 탄원서는 1899년(광무 3) 10월에 세화에 사는 오창권이 제주목에 제출한 것이다.

제주(濟州) 세화(細花) 오창권(吳昌勸)

이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어버이 산소를 마련하기 위해 10소장(所場) 개역이오름[開域伊岳] 남쪽 끝 자향(子向)을 잡은 바 있는데 그 곁에 정가(鄭哥)의 묘가 엽임(葉臨)에서 50보 쯤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풀을 베고 표를 설치하고 개토를 하고 풀로 덮고서 10월을 기다려 입장(入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달 초하루에 산소 자리에 가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표를 뽑아버리고 광중(壙中) 위에 덮어 놓은 풀도 치워버리고서 도망하여 자취를 알 수 없으니 장차 어떤 영향이 있을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필시 때를 틈타 간사한 짓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감히 우러러 하소연하니 바라건대 통

촉하신 후 특별히 엄한 처분을 내려주셔서 다른 사람이 간사한 짓을 벌이는 폐단을 막아주셔서 저희들이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혜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실 일입니다.

군수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1899년 10월 일

군사(郡使) 압(押)

(처분) 다른 사람이 미리 묘자리를 점유하고 치표(置標)한 곳을 누군가 치표를 빼어버리고 간사한 짓을 벌였구나. 사실을 조사하여 금단(禁斷)하여 묘를 쓸 수 있도록 해주라.[24]

오창권은 작고한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모시기 위해 미리 명당을 점유(占有)하여 치표(置標)를 한 후 좋은 시기를 기다려 개장하려 했는데 누군가가 치표를 훼손하고 무덤 자리 위에 덮어 놓았던 풀도 치워버렸다. 그래서 오창권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내서 자신이 안전하게 묘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선후기의 육지인들이 그러하듯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 역시 조상을 명당에 묻고 산소를 석물로 치장했는데 이것이 모두 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었다.

4. 자료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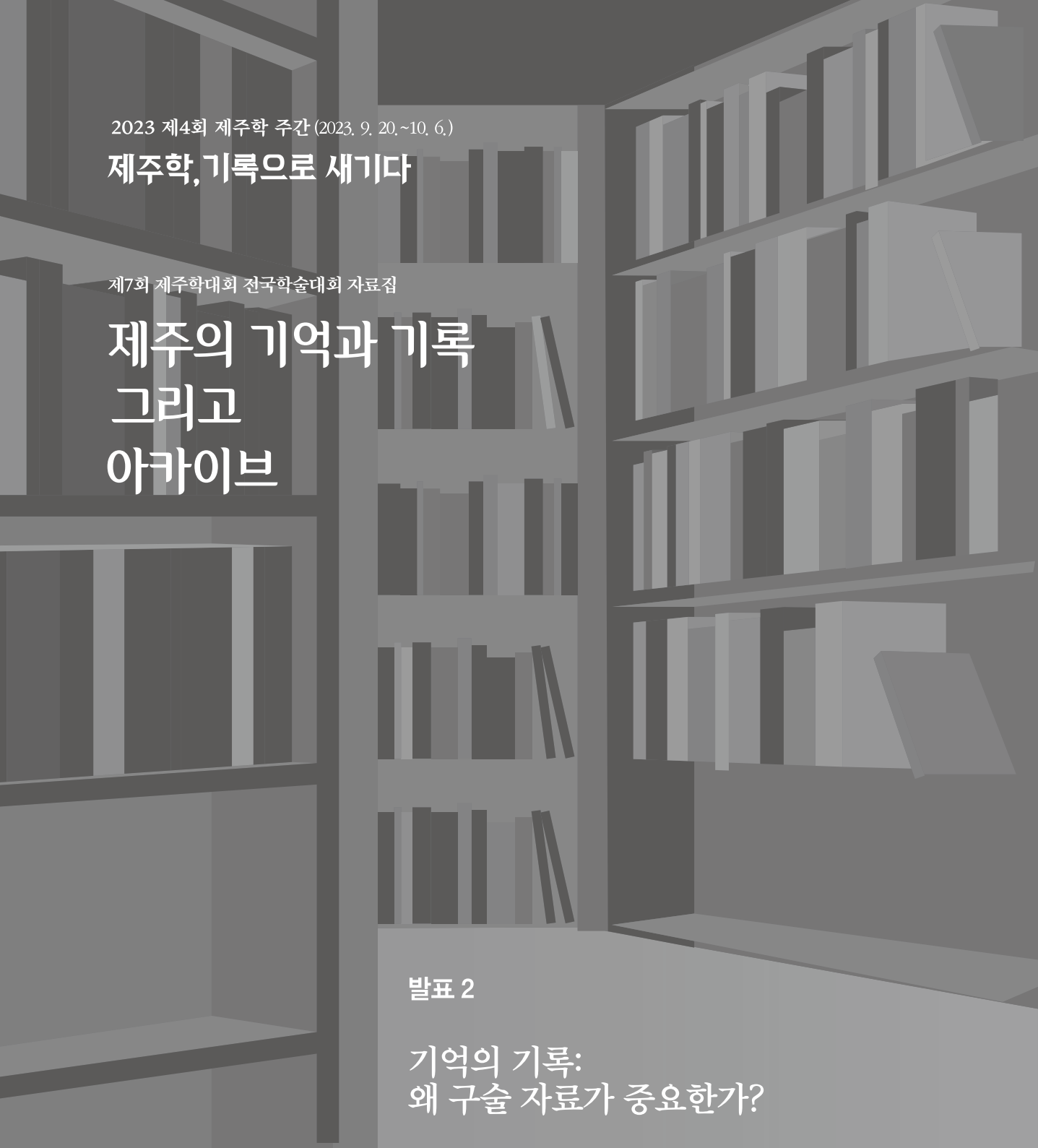
편향된 시각과 이를 보정하기 위한 노력

어느 자료나 마찬가지이지만 자료의 작성자의 시각에 따라 자료가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 자료 작성자나 수집자들은 대부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수집하려고 노력하지만 완벽

24) 위의 책, 238~239쪽.

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고 보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자로 작성된 고문헌의 경우에는 특히 지배자나 조정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당시 신분을 통하여 취득된 것이고 한자로 단순하게 사실을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이미 지배층의 시각이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지배자의 시각이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을 가지고 전통시대의 제주도의 역사나 문화를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 전에 시각의 교정이나 보정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계급의 이익이나 이해가 반영된 자료 예컨대 한글로 작성된 자료나 문자로 작성되지 않은 구술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한글로 된 문헌자료를 비롯하여 구술자료나 영상자료도 모두 함께 수집되고 정리될 필요가 있다. 기록되지 않는 자료들 특히 구술자료나 민속조사나 인류학적인 조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작업도 병행해야만 고문헌 자료가 가질 수 밖에 없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23 제4회 제주학 주간 (2023. 9. 20.~10. 6.)

제주학, 기록으로 새기다

제7회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발표 2

기억의 기록: 왜 구술 자료가 중요한가?

기억의 기록:
왜 구술 자료가 중요한가?

정연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 기억과 기록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하며 이러한 기억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러한 기억의 의미를 끌어내고 경험을 기록하여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기는 것이 구술사(口述史, oral history)의 핵심이다. 구술사는 사람의 기억과 경험의 전승을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도구이자 사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많은 국가의 현대사에 실제로 변형을 가져왔다. 구술사의 가장 분명한 기여는 어디에도 거의 남겨지지 않은, 역사로부터 숨겨져 있던 집단의 경험과 관점을 역사적 기록 안에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2. 구술

모든 역사가 처음에는 구술이었다(Thompson, 2000). 구술은 입으로 말한다는 것인데 인간은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획득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

통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구술의 언어적 행위는 구술자의 사회성, 역사성, 민족성, 계급성을 체험하게 만든다. 구술은 비언어적인 행위도 포함하는데 구술자는 구술을 하면서 특정한 표정이나 몸짓을 동반하게 된다. 음정의 고저나 떨림, 목소리의 강약, 침묵 등 문헌에 기록되기 어려운 구술 상황의 모습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구술 채록문은 그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Portelli, 2004).

또한 구술은 단순한 독백이 아니고 청자가 있으며 청자와의 상호작용이 구술의 맥락을 구성하기 때문에 연행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렇게 인간의 생애사적 기억을 말하는 것을 구술 연행(oral performance), 즉, 구술자의 기억이 언어적으로 말을 통해 연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술이 이루어지는 상황, 면담자와 구술자 사이의 관계, 라포 형성이 구술에 영향을 주고 언제,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왜, 어떻게(5W 1H: When, Who, What, Where, Why, How)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구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을 것이다.

3. 구술사

영국의 구술사가인 폴 톰슨(2000)은 구술사가 역사만큼 오래되었고 최초의 역사, 밑으로부터 역사를 쓰는 작업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는 구술의 기록과 수집보다는 구술사의 대안적 역사 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술사가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인정함과 동시에 역사가의 가정과 판단에 도전함으로써 역사의 초점을 이동하고 새로운 탐구 영역을 열어주고 역사의 내용과 목적을 모두 변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술사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구술사와 구술 자료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구술 면담으로 수집된 구술 자료를 구술사로 보는 전통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탈리아의 구술사가인 포르텔리는 구술사가 특정한 형태의 담론으로 구술을 표현의 매개로 하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라고 했다. 그는 구술 자료가 아니라 구

술 자료를 다루는 역사가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구술사를 대화적 담론으로 정의했다(Portelli, 1997). 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구술사를 '구술 자료를 통한 역사 쓰기'라고 이해하는 반면 구술 자료는 '구술사 면담을 통해서 수집된 구술 기록'으로 보는 편이다(윤택림, 2019).

한국에서 구술사는 단순히 구술 자료를 채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지평을 넓히는 밑으로부터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구술자를 역사의 주체로 보고 구술자의 시각으로 사회와 구조, 역사를 이해하려는 밑으로부터의 역사의 일환이며 대안적인 역사 쓰기라는 개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구술사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경험의 사실성과 재구성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고정 관념과 구술이 제기하는 기억과 서술의 주관성 사이의 불협화음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구술사 연구에서 역사 쓰기보다는 구술 채록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구술 자료는 역사적 사건의 사실적 증거도 제공하지만, 개인들의 주관적 경험과 해석, 개인들을 둘러싼 일상 세계와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술사가 구술자의 과거 구술이 반영하는 현재를 파악하기 위한 기억방식이 되고 디지털 사회 속에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상호주관성을 획득하는 네트워크로서 기능하는 시대로 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연구방법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구술사가 주는 많은 가능성과 구술 자료가 갖는 특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어 새로운 역사 쓰기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4. 구술사의 특성

윤택림과 함한희(2006)는 구술사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요소로 정리했다.

1) 구술성

첫 번째 특성은 구술(orality)이라는 것이다. 즉 문어가 아니라 구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녹취록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구술의 원천으로 구술을 전사한 녹취록은 들은 것을 보이게 바꾸는 필연적인 변화와 해석을 의미한다. 음과 음량 범위, 목소리의 리듬은 쓰기에서 재현할 수 없는 암묵적인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 많은 구술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해당 주제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처럼 동일한 면담에서도 하나의 리듬에서 다른 리듬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것은 읽기가 아닌 듣기로만 인식할 수 있다. 결국 구술성은 구술자의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다.

2) 서사성

두 번째 특성은 서사성(narrativity)이다. 구술 자료는 구술자가 말하는 이야기라서 구술자가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플롯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나누고 얼마나 많이, 적게 언급하는지, 어떤 말씨로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서술성은 구술의 내용과 함께 구술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틀에 담아 주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내용만큼 중요하다. 즉, 구술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술의 형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구술의 이야기는 크게 연대기적 서술과 사건 중심적 서술로 나눌 수 있다. 연대기적 서술은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와 같은 생애 단계나 일제시기, 해방, 한국전쟁,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와 같이 공식적인 시대 구분에 따라서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사건 중심적 서술은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시·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술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선정되는 사건

은 구술자에게 중요하며 사건에 대한 순서와 조합은 구술자가 자신의 삶에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3) 주관성

세 번째 특성은 주관성(subjectivity)이다. 구술 자료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기억을 통해 현재로 불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표성과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역사 연구나 사회과학 연구에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경험을 완벽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기억하는 행위는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면담자와 구술자 사이의 라포나 구술자의 상태에 따라 구술자의 서술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구술 자료만이 갖는 가치가 될 수 있으며 부분적 진실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구술의 주관성은 민족과 국가가 중심인 역사 연구에 가려진 개인의 경험을 드러내므로 연구자는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구조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술사는 사건보다 의미에 대해 더 알려준다. 이것은 구술사가 사실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술사 면담은 종종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알려진 사건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드러내게 된다. 여기서 유일한 문제는 검증이지만 연구에 대한 접근 방식이 광범위하고 명확하다면 집단이나 계층의 주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 구술 정보원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있다고 믿었던 일, 지금은 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특히 피지배계층 집단에서 나온 구술 기록은 이야기의 논리적이고 인과적인 순서가 되면 다른 정보원과 매우 유용한 통합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구술자가 이야기 자료를 배열하는 방식이 필요하게 되고 이 구성은 구술자의 역사에 대한 많은 관계를 보여준다. 구술자의 주관성은 그가 보는 과거 조각의 사실만큼 역사를 재구성할 때 더 많은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구술자가 믿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 또는 실질적으로 있는 역사적 사실, 즉 그들이 믿는 사실이다.

4) 신뢰성

네 번째 특성은 신뢰성(reliability)이다. 구술자의 과거 경험이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완벽한 과거의 재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술 자료에 의한 과거의 재구성은 언제나 미완성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정말 그때 그런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구술 자료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구술 속에 드러나는 상징성과 다양성은 심리적인 진실을 제공하고 이러한 진실은 믿을 수 있는 설명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술 자료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실적 진실뿐만 아니라 서사적 진실을 보여준다. 서사적 진실은 사실적 진실만큼 중요한데 구술자들은 서사적 진실을 믿고 있으며 그 믿는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자는 구술 자료의 사실적 진실을 쫓는다기보다는 서사적 진실로 받아들이고 신뢰를 하는 것이다.

구술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갖고 그들의 의미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술 증언이 역사 안에서 주관적인 창(窓)이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느꼈고 지금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구술 안에서 더 깊은 의미와 그것들을 다시 보는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과 삶 안에서 발견하는 복잡성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안의 이야기와 상징,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논리를 읽을 수 있다.

기억은 사실의 수동적 보관소가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Portelli, 1991). 구술 자료의 유용성은 기억에 의해 야기되는 변화, 즉 과거를 이해하고 삶에 형식을 부여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면담과 서사를 설정하려는 구술자들의 노력이다. 구술자들의 개인적인 주관적 의식은 이전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야기의 가치와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개별성

다섯 번째 특성은 개별성(individuality)이다. 이것은 구술사의 고유한 내재적 특성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공적이고 가변적이며 부분적인 개인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구술 자료의 내용은 면담자가 질문, 대화 및 개인적 관계 측면에서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 주제에 적합한 구술자를 선정하고 연구자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보다 구술자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나중에 대답하지 않은 질문을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알고 있든 없든 존재하며, 발견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구술 증언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잠재적인 자원일 뿐이며 그 정보원의 존재를 위한 조건은 그 자료들이 밖으로 방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공동작업

여섯 번째 특성은 공동작업(collaboration)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 구술은 단순히 면담자의 질문에 따라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구술자가 자기 해석을 해 내는 작업이다. 구술자는 구술의 주체이면서 해석자이며 구술사는 연구자와 구술자가 함께 만드는 역사인 셈이다. 그래서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서 구술자를 단순히 피면접자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구술사는 연구자 또는 면담자와 구술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고 공동작업의 성격을 띤다. 연구자가 철저히 그 과정에서 중립적일 수는 없으며 구술자와 연구자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고 구술 채록을 통해 텍스트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자와 구술자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구술자와 연구자가 같은 목소리나 동일한 관점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서 구술자와 연구자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한국의 구술사

한국에서 구술 기록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80년대까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분단, 냉전, 독재, 반공으로 얽힌 사회로 국가, 민족, 정부가 주체가 되는 집단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사회적 담론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7년 6월 항쟁,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민주화가 진전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기존의 사회적 담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군사 독재와 급격한 경제 개발이 가져온 사회적 모순이 표출되고, 억압된 과거사에 대한 규명 요구가 반정부 운동으로 시작되면서 문헌 기록의 부재에 따른 구술 증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써 구술사는 민중을 발견하고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운동이 되었다(윤택림, 2012). 이 시기에 출판사 '뿌리 깊은 나무'는 역사학에서 배제되었던 민중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면담하여 처음 민중 자서전을 출간했다. 이 자서전은 목수, 보부상, 옹기 장이, 반가의 며느리, 농부와 같이 다양한 민중들의 삶을 채록했는데 구술의 텍스트화에서 구술, 방언의 재현에 특별히 관심을 두었다(윤택림, 2019).

1980년대 중반 이후 현대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억을 회복하기 위한 구술 사업이 지식인들과 사회단체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제주 4·3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한국의 근·현대 주요 사건에 대한 구술 기록물들이 다수 생산되었다(손동유, 권용찬, 2013). 광주의 민주화운동가들은 현대문화연구소와 전남민주청년운동협의회를 통해서 5·18의 경험을 기록하기 위하여 구술 증언집을 발간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발족되면서 한국정신대연구회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구술 증언 조사가 시작되었다. 제주에서도 4·3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1989년 제주4·3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진실 규명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1980년대 말부터 구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지만, 1990년대 초까지 구술은 사료로서 인식되지 않았고 기억은 역사와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0년대에 문민정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개인과 지방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민

주화, 개방화, 다양화라는 변화는 기관에서 다양한 주제의 구술 채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 역사와 문화의 재생이 활발해지고 정보화 사회 안에서 개인과 지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그리고 과거사 진상 규명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 진행되었던 구술 증언 조사가 좀 더 체계화되면서 구술사는 민주화된 사회 구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윤택림, 2019). 또한 인류학자, 사회학자들이 구술사 연구를 주도하면서 구술사 이론 소개, 구술사 사례 연구, 구술사와 생애사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를 정리해서 발표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현대사 진실 규명을 위한 구술사 연구가 확대되고 근·현대 주요 사건에 대한 구술 기록이 다수 생산되기 시작했다.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성적 폭력과 착취에 대한 문헌 기록의 부재로 군위안부들의 구술 증언을 계속 수집했고, 제주 4·3사건 구술 증언도 계속 수집하여 문헌 기록으로 복원될 수 없었던 역사적 경험을 복원하여 과거사 진상을 규명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일부 연구자들이 왜곡되었거나 망각된 사실이나 피해의 기억을 복원하기 위한 도구로 구술사 조사 방법을 활용했다(김귀옥, 2014). 이렇게 사회적 관심은 민족, 국가, 사회라는 거시적 주제에서 개인이라는 미시적 주제로 이동하게 되었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구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구술사는 하나의 학문분야이며 연구방법으로 학계에서 받아들여져 크게 도약하게 되었다. 이는 구술 채록 기관이 늘어나고 구술 증언 자료집이 출간되기 시작한 것과 구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증가, 그리고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었다. 이렇게 구술사 연구가 발전되는 배경에는 국가주의적 역할이 컸으며 구술 기록 수집은 개인 연구자나 지방 단체에서 정부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기관 중심의 대규모 구술채록 사업이 진행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구술채록사업을 시작했고,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은 기초학문 육성을 위하여 구술사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억을 기록화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었다. 정부에서 구술 증언 수집을 통해 대대적으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구술사에 대한 이론과 방

법에 관심을 증대시켰다(김귀옥, 2012).

2000년대 중반부터 구술 기록의 의미와 관리 방법, 지역 구술 기록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주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구술 기록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구술사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구술사 연구의 범위도 한국전쟁에서 점차 지방사, 생활사, 노동사, 여성사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주로 근·현대사의 주요한 사건과 인물이 중심이었던 구술 기록이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민을 역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구술 채록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구술 자료를 구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구술 채록과 구술 아카이브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만들어졌다.

2010년대로 가면서 역사학자들의 구술사 연구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특히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증거, 즉 구술 증언을 수집하여 새로운 역사 해석을 가져왔다. 문헌을 기초한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역사에서 탈피하여 지역에서부터 평범한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으로 해석되는 한국전쟁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역사 쓰기가 이루어졌다. 전쟁 경험에 있어서 국가나 이념보다는 집안과 가문, 신분, 친족관계, 종교,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여성의 한국전쟁 경험, 전쟁 미망인 연구를 통해 전쟁이 여성의 성역할에 준 영향과 균열을 살펴볼 수 있었고 여성이 가장으로서 전후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로 부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구술 채록이 기존의 피해자 중심에서 엘리트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한국 근대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정치인과 관료 중심의 구술 채록을 시작했다(윤택림, 2012).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 강조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역민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다. 구술 채록이 지역 문화 자원이 되고, 지역마을 구술 사업은 지역 분권과 지역 연구 활성화로 확장되어 도시 개발과 재생 사업과 연관되기 시작하였다(배은희, 2018).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역사적 상흔, 트라우마를 준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구술사 면담이 치유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계, 기관, 사회적 담론의 변화 속에서 구술사는 지방과 개인으로의 관심 이동

과 탈근대적, 탈시민적 역사 연구를 향한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민족, 국가, 사회라는 거시적인 주체에서 드러날 수 없었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 내에서 소리 내지 못했던 개인적, 집단적 경험과 기억들이 이제는 한국 사회의 보다 나은 민주화와 역사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귀중한 자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 구술 기록 수집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수집된 구술 기록의 관리와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특히 구술사는 지역민의 역사와 정체성을 찾는데 적합한 도구이며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나도은(2012)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지역의 일상과 주민들의 삶의 궤적에 대해 집중 조명하여 당해 지역 주민들의 진솔한 기억과 경험에 대한 기억을 구술의 기록으로 담아내는 것은 기록 부재의 사회에서 왜곡되고 조각나버린 공식 기록을 복원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지역의 구술사 연구는 지역 사료 수집과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에 필수적이다. 지역민들이 구술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찾고 만들어갈 때 대안적 역사 쓰기로서의 가능성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6. 구술 자료의 국가자원화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하나의 도서관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는 문자가 없던 사회에서 구전 문화 전통은 매우 중요했고 기억이 바로 역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에 따라 인간의 삶은 변하고 남겨진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 모습을 기억한다. 기억은 이야기가 되고 기록이 되어 역사로 남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기록도 공감하면 역사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의 삶의 경험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역사는 새로운 차원에서 볼 수 있다. 구술사는 초점의 이동뿐만 아니라 중요한 새로운 탐구 영역의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술사가 많은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고 있는 이유는 구술사가 알려지지 않은 경험을 보여주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1) 국내외 상황 비교

기록은 그 시대를 보여주는 수많은 창(窓)이다. 인간의 활동을 담은 기록은 기억의 조각을 모아 지나간 시간을 그려보게 하며 과거를 재현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중에서도 구술 기록은 구술자의 생애사적 기억이 구술을 통해 그 시대와 만나는 것이다. 특히 공공 기록만 가지고 우리 시대를 복원하거나 재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민간기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구술 자료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그 시대를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한 구술 자료는 우리 시대의 주요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한국 구술사는 초반에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 운동으로의 정체성이 강했고 일종의 사회 운동으로 시작돼 학계로 유입되는 과정을 거쳤다. 1990년대엔 제주 4·3 사건, 위안부 피해자, 미전향 장기수 등 한국 현대사의 그늘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지방과 여성으로 연구 범위가 확장됐다. 2000년대 이후엔 정부 기관의 활발한 연구 지원 하에 과거사 규명은 다양한 구술 자료 수집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구술 자료 활용 서비스의 측면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접근 가능한 자료는 다양했지만, 기관에 따라 제한적인 구술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구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거나 구술 자료는 정기적으로 수집하더라도 모두 비공개로 처리하여 서비스 자체를 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원은 단행본 출간과 기획 전시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술 자료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정부 산하기관은 자체 통합관리시스템을 갖고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장기보존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많이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술 자료에 대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나 구술 자료의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각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정리와 기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대표도서관에서는 구술 자료를 도서관의 대표적인 컬렉션 중의 하나로 수집, 관리, 활용, 보존하고 있다. 구술 자료가 국가적으로 전승되어야 하는 국가지식유산으로 간주되어, 일찍부터 센터나 독립 부서를 설치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수집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넘게 구술사 연구에 다양한 성과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다. 국내의 경우, 무엇보다도 구술 자료의 생산 주체가 각기 상이하고 생산기관별로 독자적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어 자료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현재 각 기관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구술 자료에 대한 소장 파악이나 관리 상태를 알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소실 위험과 자료로서의 활용도 저하, 구술 원자료에 대한 소홀한 관리 등 국내 구술 자료의 관리 및 보존 현황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구술 자료를 사료가 아닌 출판의 수단으로 여겨 구술 면담의 원자료에 대한 적절한 아카이빙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구술사를 학계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공적인 교육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술 자료의 양적인 팽창은 이루어졌지만 질적인 내실화는 취약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국내 구술사의 취약점은 교육에 있어서 여전히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학문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수집된 구술 자료의 양에 비해,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는 경우도 무척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아카이브 콘텐츠를 활용한 드라마나 창작 활동 같은 후속 작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돼서 구술 자료가 대중에게 공유되는 이야기로서 기획, 정리, 서비스하는 작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술 자료의 귀중한 국가지식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구술 자료에 대한 공동 목록이 가장 우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관 고유의 주제와 영역을 갖고 구술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술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서비스 절차를 마련하고 구술 자료 메타데이터의 개발 및 표준화, 구술 자료의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통해 다양한 지역 공동체의 생생한 기억을 담고 있는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 및 보존하여 이야기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 전해주는 새로운 방향에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민간 구술 자료 수집의 중요성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9)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 소멸의 위기

에 처한 지역이 증가하고 지역 내 다양한 삶의 기억들이 유실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 역량을 축적하고 공동체 삶의 기억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을 13개 핵심정책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공동체의 삶의 기억을 수집·보존·관리하는 체계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체계 구축과 공공도서관의 지역공동체에서의 역할 강화를 포함했다. 특히 정책적으로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세부과제로 국가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지역 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적으로는 역사·향토자료 콘텐츠 수집·축적, 창조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소실 우려가 있는 다양한 공동체의 자료를 잘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한 공동체 자료 아카이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교류 협력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들어서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사와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에 구술사가 활용되고, 구술 자료는 사람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화하여 역사적인 사료로 더욱 더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지역에서 개인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인 도서관, 문화원, 지자체에서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여 구술사 면담을 통하여 지역 이야기들을 출판하고 있다.

그런데 어렵게 수집된 구술 자료들이 제대로 관리 및 보존되지 못하고 출판물만 주로 남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험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구술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제대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유산기관은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 기억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 전승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들의 역사와 문화를 아카이빙하고 소통과 공유의 플랫폼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근현대사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기존의 공동체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공동체들이 출현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후대에 전해줄 지역의 다양한 삶의 기억들이 유실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지역의 향토자료와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체 기억의 보존, 공유 확산은 국가 기억 및 지식을 망라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과 공동체 생활사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로 이 부분이 구술 자료 수집의 근거와 타당성을 제공한다.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유산기관들이 새로운 관점의 특화된 구술사 컬렉션을 구축한다면, 국가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후대에 전승되어 늘 살아있는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술 채록 활동을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구술을 통해 지역 구성원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공동체 복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구술 채록을 통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기관은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이 되어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구술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3) 구술 자료 수집 및 활용의 기반

정연경 외(2019)는 구술 자료 수집 과정의 어려움으로 구술채록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정리 기술의 한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구술 서비스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구술 자료를 국가자원화하는 데 있어서 구술 자료 관리 지침서 제공, 구술 자료 국가종합목록 작성,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 제공, 구술 자료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제공, 구술 자료 장기보존 및 보존소 제공, 구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새로운 구술 컬렉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구술 기록물 수집·활용·보존·관리 개선을 위해서 구술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정책과 매뉴얼 수립, 전문 인력의 배치, 구술 기록물 수집·보존·기록·

관리에 대한 전문 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의 구술사를 활용한 홍보 전략 개발, 구술 기록물을 관리·보존할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공동체 삶의 기억을 구술 자료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보존하는 체계를 갖추고 구술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 현재 구술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전문 인력이 있는 곳이 드물어서 아카이빙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수행한 구술사 연구의 구술 자료들도 자료 관리가 취약하여 유일무이한 구술 자료들이 소실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개인 연구자의 구술 기록과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 구술 원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구술 자료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구술채록 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시민아키비스트', '마을기록활동가' 등을 양성하기 위해 아카이브와 기록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록 수집 및 생산, 정리, 보존 등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정기적인 체계화된 교육 과정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비정기적인 단기 과정을 지양하고 차별화된 심화 과정도 마련하여 구술 자료의 수집부터 채록, 출판이나 전시, 공연 등을 통한 활용과 보존까지 실제로 구술 작업에 참여하고 전 과정을 습득하여 실제로 시민기록가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민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하고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구술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술 사업이 단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록수집 및 편찬 등의 활동에 집중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의 확보나 조직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구술 자료의 파악과 활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구술 자료 플랫폼이 필요하다. 앞으로 구술 자료의 양이 급속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술 자료의 생산, 관리, 활용, 보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관 기관들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구술 자료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체계와 방법론을 개발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기억하기, 기록하기, 역사 쓰기

인간과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구술이 있어왔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일제강점 아래의 식민통치와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급격한 경제성장 등 갑작스럽고 험난한 사건으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각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남겨졌지만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는데 구술이 활용되었고, 이는 개인의 삶과 지역사의 굴곡을 드러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후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문화가 깃든 공동체가 보존되기 어려워졌으며 지역 공동체의 합일보다는 개개인의 존엄성이 우선시되고 자본주의가 만연해진 문화 현상 속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집단이 늘어났다. 2020년대 한국 사회는 인구 절벽과 초고령화의 가속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이 소멸되면 지역 주민 고유의 삶의 방식으로써 전해져오던 문화 정체성과 유무형의 지역 문화 자산이 소실되고 만다.

그래서 최근 지역 문화 자원의 체계적 관리·활용 필요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도시화 과정 속에 소외 지역의 발생은 지역을 기억하는 지역 구술의 동인이 되고 있다. 즉, 역사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에 놓인 지역민들이 삶의 터전이었던 지역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점점 사라져가는 지역자료의 보존에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 지역의 사료 확보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술 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지금까지 제도권에서 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주민의 일상, 기억, 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과 관련된 향토자료 등의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콘텐츠화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마을과 도시기록화 사업은 급격한 도시화와 택지 개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과 도시의 역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마을과 도시 관련 변천과 현재를 보여주는 사진과 물품

등의 기록을 수집하고 구술채록, 전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쓰여지지 않았던 역사, 스스로 소소한 역사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통해 마을과 시대의 역사를 담으려는 것은 새로운 역사 쓰기의 지평을 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풍부한 사료를 생산해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구술 자료는 지역민들이 지나온 삶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역사의 한 부분을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 자료를 수집과 보존, 활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 구술 활동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흩어져 있던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역 구술은 지역자료를 보강할 기회이자 공동체 정신의 활성화를 위한 탁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사 연구에서 구술 자료가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주요 정보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지역민들이 지나온 삶의 경험을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데 구술 자료와 구술사가 가진 힘에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된다.

7. 구술 자료의 전승

구술사는 기록된 면담을 통해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의 해석과 기억을 수집한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은 자신이 속한 시대와 집단의 삶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구술 자료는 문헌 자료와 함께 역사 서술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 구술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사회적 입지 역시 확대되면서 그동안 수집된 수많은 구술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더 넓게 활용할 것인가에 신경을 써야할 시점이다. 특히 쌓여가는 구술 자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술 아카이브, 구술 자료를 정리하고 활용 및 보존이 가능하도록 집합적으로 축적하는 기관의 시스템(정연경, 최윤경, 2017)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아카이빙 작업은 개인이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기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관심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

구술사 연구는 대개 많은 공적 비용이 연구를 촉진시키고 예산으로 활용되므로 구술 자료나 연구 결과물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재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구술사의 공공재적 특징으로 인해, 사료로서 진실 찾기라는 본래 목적 외에 문화 콘텐츠 창작, 트라우마 치료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모든 인간은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좋은 이야기는 추억이 되어 삶의 에너지가 되지만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트라우마가 되어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하지만 구술은 그저 말을 함으로써 새로운 진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고통을 치유하는데 힘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구술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엘리트뿐만 아니라 다수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줄 수 있다. 구술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회계급 및 세대 간에 소통을 가져와 상호 이해를 확대시켜 지역과 시대에 소속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기반의 문화를 이끄는 기관들이 지역 중심의 특화된 구술 자료의 수집을 시작함으로써 구술 자료의 국가자원화에 기여하고 구술 자료의 이용을 촉진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보존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시대의 구술기록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증거적 가치를 국가지식유산으로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문화유산으로서 구술 자료의 전승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미래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들을 수집하여 전승해야 한다. 그러한 기록들 중에는 과거와 현재의 중요한 주제나 사건, 경험, 인물들에 대한 구술 면담을 통한 구술 자료도 포함된다. 이제는 한국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구술채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의 구술사 컬렉션이 추가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국가 지식문화유산이면서 국가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후대에 전승되어 늘 살아 있는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국가의 수많은 기관들이 국가지식정보자원 보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전쟁으로 얼룩지고 갈라진 땅에서 이루어내야 했던 경제

개발, 그 뒤에 닥친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어렵게 견뎌내야 했던 세월 속에서 함께 극복해나가야 하는 이웃과 가족이 있고 그들에 대한 기록이 더욱 소중해지는 시점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과정은 한 나라와 지역의 역사가 나의 조상들의 삶에서 나의 삶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기록되지 않아서 사라질 뻔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남기고 들려주는 것은 공동체 기억을 복원하고 공유·확산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이제는 구술 자료가 수집만이 아니라 활용 및 보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세대를 넘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귀옥(2012). 한국사 발전을 위한 구술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기록인(IN)』, 20호, 24-29.

김귀옥((2014). 『구술사 연구: 방법과 실천』. 서울: 한울 아카데미.

나도은(2012). 기억의 구술을 통해 본 신도시 주민들의 공간과 일상에 대한 관계 맺 기와 실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비교문화협동과정 비교문화전공 석사학위논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2023』. 서울: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배은희(2018). 지역 구술 기록의 생산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 지』, 18(2): 85-108.

손동유, 권용찬(2013). 체계적인 구술 기록 생산을 위한 제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135-158.

윤택림(2012). 왜 구술사인가. 『기록인(IN)』, 20호, 18-23.

윤택림(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윤택림, 함한희(2006).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정연경(2022). 『기억의 기록으로 쓰는 구술사』. 서울: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정연경 외(2019).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 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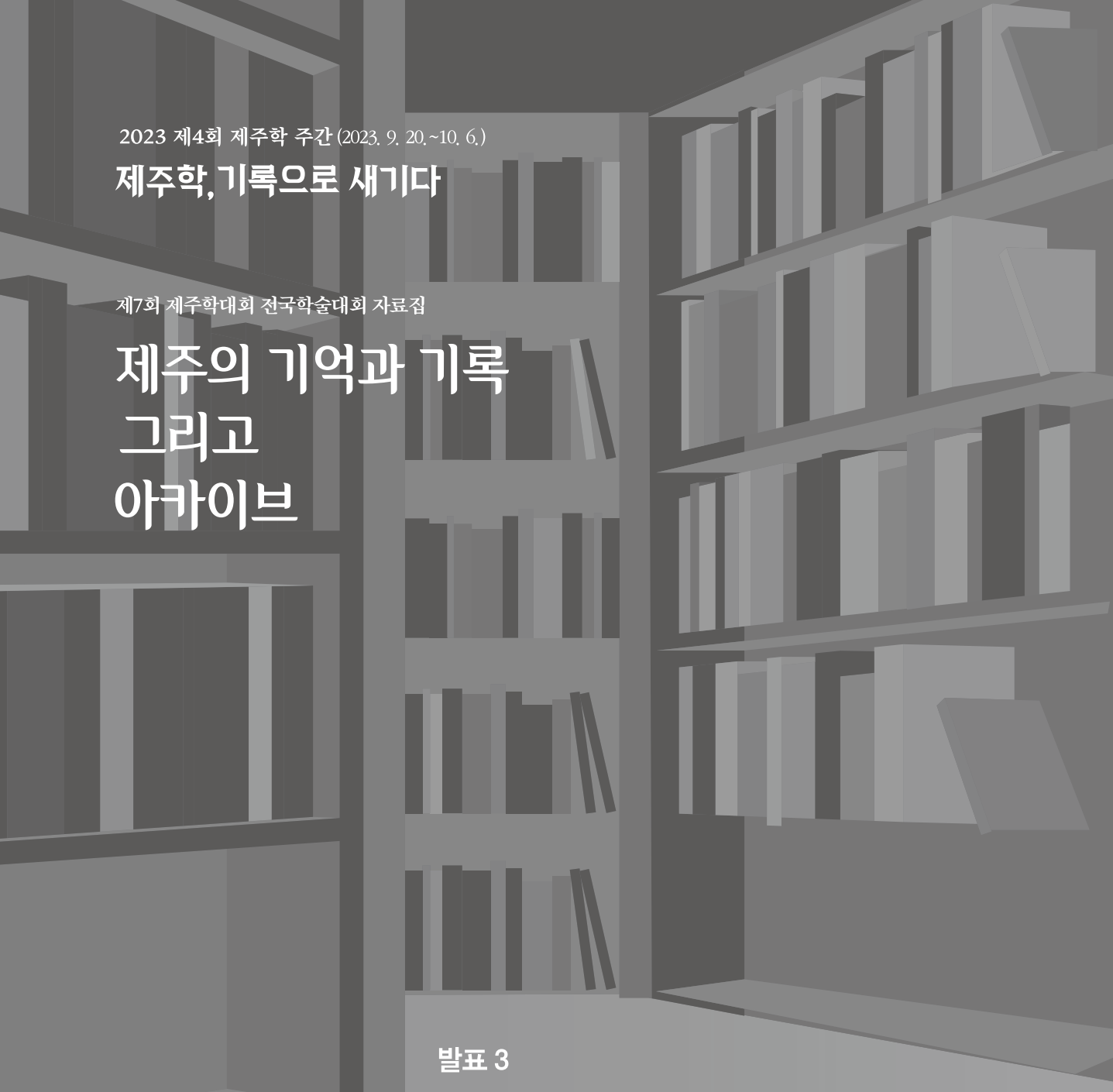
정연경, 최윤경(2017).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홍천: 아르케.

Portelli, Alessandro(1991). Death of Luigi Trastulli and Other Stories: Form and Meaning in Oral History. Albany, NY: State of New York University Press.

Portelli, Alessandro(1997). The Battle of Valle Giulia: Oral History and the Art of Dialogu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ortelli, Alessandro(2004). The Order Has Been Carried Out: History, Memory and Meaning of a Nazi Massacre in Rom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Thompson, Paul(2000).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제4회 제주학 주간 (2023. 9. 20.~10. 6.)

제주학, 기록으로 새기다

제7회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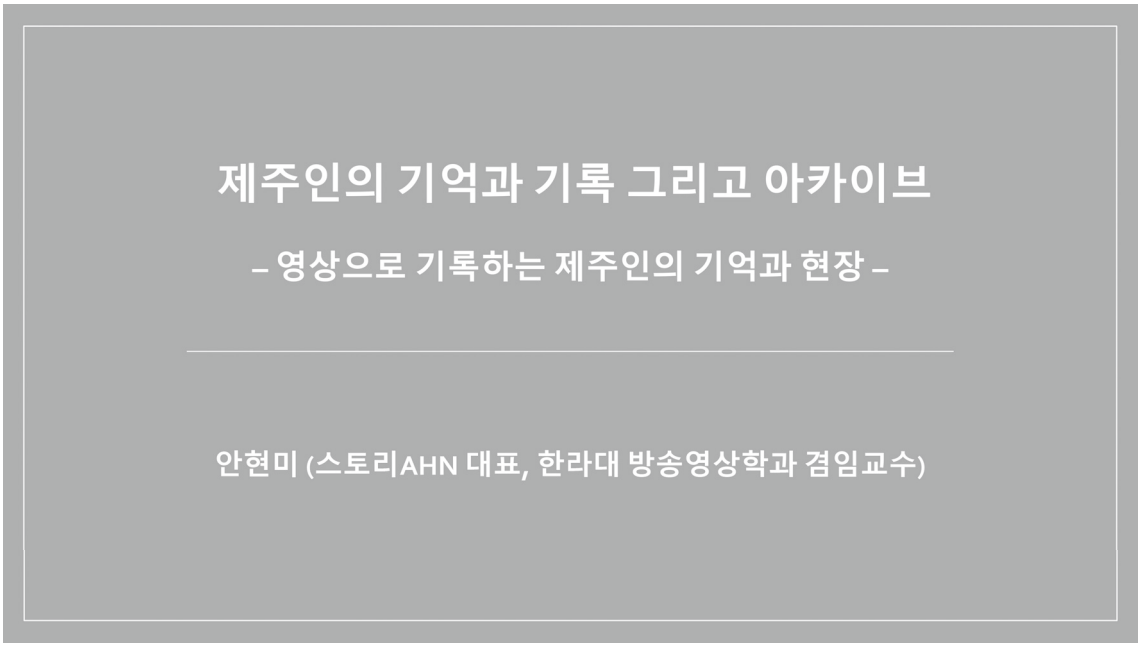
발표 3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인의 기억과 현장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인의 기억과 현장

안현미

스토리 AHN 대표, 제주한라대학교 겸임교수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바로, 이 제주역사를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여성들의 역사를...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제주여성이, 제주역사입니다!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영상 Archive를 하는 이유 -

1.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제주 4.3, 민주화 운동,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지정 등 바람 타는 현대사를 온 몸으로 겪어온 어르신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작은 박물관

2. 삶의 텃밭에서 묵묵히 인생을 개척해온 그들의 삶을 영상으로 채록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 기록에 일조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영상 Archive를 하는 이유 –

3. 한 세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는 시점,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상채록 더욱 더 중요

4. 어르신들의 생생한 육성과 표정 등을 통해 굵직한 시대 의 흐름 뿐만 아니라 감정의 역사 또한 기록할 수 있음

5. 영상기록을 통해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풍경으로 재현, 기억과 현장이 오롯이 담길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아카이브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제주여성생애사 허스토리2] 황옥선, 김순자
STUDIO JEJUMBC _ 스튜디오 제주MBC · 조회수 492회 · 2개월 전



[제주여성생애사 허스토리2] 변성여, 양을생
STUDIO JEJUMBC _ 스튜디오 제주MBC · 조회수 366회 · 3개월 전

제주여성 생애사 아카이브 – 제주여성, 허스토리

- 2021년 ~ 2023년 현재까지, 총 46명

- 2021년: 10명 (제주도내 80세 이상 제주여성)
  2022년 :20명 (제주도내 80세 이상 제주여성)
  2023년: 16명 (제주도내 80세 전.후 제주여성)

- 영상 기록을 통해 오랜 세월 제주여성에게 전해져 오는
  제주여성의 DNA를 탐구하고 규명하는 작업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제주여성 허스토리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

문화관광광부, 여성신문사, 여성문화네트워크 주최

'2022 올해의 양성평등문화 콘텐츠상 수상'

-'82년생 김지영' '다큐멘터리 김복동' 역대 수상작품

'한 여성의 생애가 역사가 되다!'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을 했음에도 그림자로 존재해야만 했던
제주여성들의 삶의 궤적을 영상기록으로 남기는 작업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2021 제주여성 허스토리 –

1. 현 ㅇ 생 (파독간호사 출신) - 어떤 상황에도 기죽지 않는 것
2. 박 ㅇ 순 (서문시장 고추장인) - 곧이 곧대로 정직한 삶
3. 김 ㅇ 산 (제주 창민요 명창) – 자신의 길 묵묵히
4. 양 ㅇ 옥 (식품명인, 푸른 콩 된장) – 토종을 지키는 뚝심
5. 고 ㅇ 덕 (제주여성해병대) – 남에게 기대지 않은 강인함
6. 정 ㅇ 지 (남원농부) – 현실을 탓하지 않은 긍정의 힘
7. 고 ㅇ 순 (북촌 4.3 생존자) – 강할 수밖에 없는 강인함
8. 김 ㅇ 열 (애월 중산간농부) - 한시도 쉬지 않은 부지런함
9. 김 ㅇ 심 (남성마을 터줏대감) – 공을 반드시 갚는 마음
10. 김 ㅇ 자 (우도해녀) – 해내고야 마는 강한 의지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2022 제주여성 허스토리 –

1. 김 ㅇ 생 (100세, 남원) – 강한 의지로 이겨낸 100년
2. 신 ㅇ 자 (한복장인) – 바느질 매듭 풀 듯 살아온 인생
3. 김 ㅇ 옥 (무근성 산증인) – 질곡의 세월 헤쳐온 지혜로움
4. 고 ㅇ 화 (토종농사꾼) – 토종 지우지 않고 지켜온 뚝심
5. 고 ㅇ 순 (동문시장 한복골목 터줏대감) – 역경 속에서 최선 다하는 책임감
6. 양 ㅇ 열 (할망장터 70년) – 마음을 주면 마음이 돌아온다
7. 진 ㅇ 자 (제주여자배구의 산증인) –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세
8. 강 ㅇ 희 (서귀포 여성 기업 개척자) – 돈보다 사람이 중요
9. 변 ㅇ 여 (중산간 마을 농사꾼) – 일한 만큼 정성만큼 거둔 삶
10. 양 ㅇ 생 (중산간 마을 여성리더) –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마음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2022 제주여성 허스토리 –

11. 김 ㅇ 자 (중산간 마을 여성의 삶) – 무엇이든 열심히 열심히
12. 김 ㅇ 자 (표선면 중산간 농사꾼) – 정직한 노동으로 일군 삶
13. 이 ㅇ 수 (물질 80여년) – 부지런함으로 헤쳐온 세월
14. 고 ㅇ 자 (바닷가마을 여성리더) – 액은 못 들어오게, 좋은 것은 감싸 안고
15. 정 ㅇ 미자 (고무옷 장인) – 내일을 열심히 하는 당당함
16. 김 ㅇ 화 (제주향토음식지킴이) –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마음
17. 황 ㅇ 선 (유아교육 산증인) – 스스로 나침반이 되어 길 개척
18. 김 ㅇ 자 (제주영귤재배개척자) – 소신 가진 일을 끝까지
19. 고 ㅇ 년 (표선 최초의 여성 노인회장)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삶
20. 장 ㅇ 선 (건설현장 여성일꾼) – 시련 속에서도 지킨 자기(自己)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김 ㅇ 생 (101세, 남원읍 신흥2리)

"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사람들이 너무 무정합디다. 조선사람은 병정으 로 징용하면 무서운 곳으로만 앞장을 세우고... 조선 사람 병정으로 (강제징용) 간 사람들 중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물에서 죽어서 물이 되었는지, 땅에서 죽어서 흙이 되었는지, 부모님네는 병정으로 나간 날로 제사하면서 울면서 남은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밭에 농사를 지어놓으면 일본 사람은 공출이라고 하면서..."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고 ㅇ화 (토종 농사꾼, 유년기 오사카 폭격 기억)

"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다보니 도전히 (오사카 시내)에 살 수 없어서 이제 조금 조용한 부락에 가서 살았지. 여기서 살다가 밤 중에 폭탄 떨어져 버리면 우리 죽을 것이라서 우리 어디로 피해 야겠다고 해서 조용한 부락으로 피난 갔습니다.
9시 되면 구시오 케오라면서 사이렌 광광광 울리고 구시오 케오라고 하면서 미국 비행기가 민민민 폭격을 했습니다."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 강 ㅇ희 (서귀포 여성 기업 개척자)

"그때에는 보리나 조나 농사지으면 공출을 해갔습니다. 반마다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그 반에서 쌀을 내놓지 못하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장네 집에서나 동장네 집에서 그것을 대신 내놔야 합니다. "

"일제강점기 때 밭에 가서 무를 줍다가도 비행기 소리가 나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밭고랑에...사람으로 안 보이게 하려고...자리돔 잡으려고 다니는 배 하나만 봐도 죽여 버렸던 시대이니까...비행기에서 폭격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비행기 소리 나면 그때가 떠올라 가슴이 무섭게 탕탕탕 뛉니다. 그때 기억이 가슴에 얹어 있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되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그 다음엔 또 4.3 사건이 터져 버려서..."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1. 역사(歷史)에 대한 기억과 현장

(1) 일제강점기
- 강제징용에 대한 기억
- 공출에 대한 기억
: 보리, 고구마 절간, 놋그릇, 씨앗, 잔디(태역) 공출 등
- 공습과 폭격에 대한 기억
- 배고픔에 대한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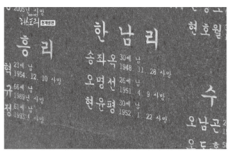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1. 역사(歷史)에 대한 기억과 현장

(1) 일제강점기
-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 서당에서 어깨너머로 공부
: 일본어 교육, 창씨 개명 등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현 ㅇ 생 (4.3유족, 파독 간호사)

"1976년도에 아이들 아빠가 독일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일시 귀국을 했어요.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 신원조회를 하니 4.3 행방불명자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못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 4.3때 행방불명되신 아버지는 남원읍 한남리에서 농사짓던 분이세요. 23세에 마을에 토벌대가 들이닥치면서 행방불명이 되었고, 제 밑에 있던 한 살 난 동생들도 난리를 피해 머체왓에 몸을 숨겼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고 ㅇ 순 (북촌 4.3 생존자)

" 당시 저는 아홉살이었수다. 매일 마을로 탄압이 와신디 하루는 군인차, 하루는 순경차오면 (어머니가) 완여야 완순아, 영택아 우리 오늘 다 죽었쩌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

" 창으로 창호지를 푹 찌르면서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기관총을 빼들더니 앞줄에 있던 동네 삼춘을 다닥 쏘더라고요. 기관총이 다다다 하면서 총소리가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완순아, 완여야, 대가리 땅에 박으라, 박으라...."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김 ㅇ 열 (잃어버린 마을 윤남비 출신)

" 윤남비는 4.3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 버려수다. 원래 소와 말만 키웠던 마을이우다. 거기서 여덟살때까지 살아수다. 4.3 때 토벌대가 마을에 불을 붙이면서 폭도 심어간다고 빨리 내려가야 한다고 해서 소개를 갔주마씸.
그때 우리 집에도 불을 불여 버려서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은 상가리 마을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수다."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1. 역사(歷史)에 대한 기억과 현장

(2) 제주 4.3사건
- 부모님과 가족희생에 대한 수난사 기억
- 마을공동체 파괴와 소개에 대한 기억
- 성담 쌓고 보초 서기에 대한 기억
-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기억
  : 윤남비, 곤을동, 삼밭구석 등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 고 o 덕 (6.25 당시 제주여성해병대)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났다는 얘기는 어렸지만 들었어요. 어느날인가 학교(제주여중)에서 모이라고 해서 다 모였는데, 학생들 중에서 내가 키 커서 제일 먼저 선발되더라고. 그게 신체검사였어. 그 일이 있고난 후 3일만에 신문에 여성해병대 합격자 명단이..."

"남자 3천명은 먼저 부둣가에 가 있고, 여자 126명은 제일 나중에 탔는데 배가 쭉 가는데 그때야 눈물이 나더라고..."

"남녀가 똑 같이 훈련받았어. 앞에 총도 하고 구보도 하고, 키가 작은 여자들의 경우 총 매고 걷는 것이 아니라 총을 끌면서 구보 했지."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김o옥 (제주시 삼도동, 무근성 터줏대감)

"6월 25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제 (방직공장) 기숙사에 밥 먹으러 갈까 하고 있는데, 기숙사 선생님이 피신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갖지 말고 몸만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더라고. 삼팔선이 터졌구나 부르릉 부르릉 총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제 3년 번 것을 다 쌌어. 나 혼자만 갈 수 없어서 같은 공장에 있던 귀덕, 곽지, 금성 사람들이랑 피난을 가기 시작했지.
일단 대구로 가서 배를 타고 제주로 가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나중에 평택항까지 가게 된 것이라..."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김 ㅇ 자 (4.3 유족, 월남 파병 가족)

"남편은 4.3으로 부모님도 희생되고 밭도 없어서 돈을 벌러 월남전에 간 거라 마씸. 자원해서 백마부대로 참전해신디 부모님이 4.3으로 돌아가시자 남편은 공부도 못해 글을 잘 몰라부난 월남전 끝난 후에 부산에 들러 한달간 요양을 하라고 했는데, 글을 못 읽어서 그냥 제주로 온 거라 마씸.
한 평생 몸이영 머리영 가렵고 부스럼 나고 문드러져서 일도 하지 못했수다. 경허다보니 내가 밭일이영 놈의 집 일이영 다 담당할 수 밖에 없었던거라 마씸..."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1. 역사(歷史)에 대한 기억과 현장

(3) 6.25 한국전쟁
- 피난(避難)과 가족희생으로 인한 수난사

(4) 월남전 파병
- 배우자의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수난사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김 ㅇ 자 (우도 해녀, 충남, 일본까지 바깥물질)

"좁은 섬에서 살려고 하니까 당돌하게 살지 않으면 안되어서,
우도 해녀들은 결심하면 뭐든 악착같이 해나가는 것이 이신거 닮아..."



"젊은 날엔 동네 사람들과 어울렁 충남하고 부산, 저 멀리 일본 대판 오사카
까지 물질 다녀왔주. 그걸로 아이들 공부 시킬 수 있었던 거라..."

"부모 잘못 만나서 딸이 물질하다 돌아오지 못해서... 그때 나이가 열여덟이었는디,
중학교 마친 다음 고등학교 들어가기전 1년을 나 따라 다니멍 물질을 해서,
물질을 잘 허니까 안심행 있어신디, 경 되비난, 그 후 몇년 간은 바당에 들어갈수가
없었주..."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2. 경제활동(經濟活動)에 대한 기억과 현장

(1) 해안마을

- 해안 마을 대부분 반농반어의 형태
- 10대 초. 중반부터 대를 이어 물질 하는 해녀
- 물질 짬짬이 밭농사와 생길이 공장(무 말랭이공장) 또는 절간공장
- 돈벌이 위해 육지로 바깥물질
  : 바깥물질 통해 삶의 지평 넓히고, 왕성한 경제활동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 김o심 (4.3 유족, 남성마을 터줏대감)

"재봉틀해서 받으면 다리고 심지 붙이고 그것이 끝나면 뒤집어서 그 옷을 말끔히 멋쟁이가 입는 옷처럼 만들어 놔..."



"시다(보조)월급이 보름에 2만원, 한 달이면 4만원, 당시 시청 공무원 월급이 1만5천원인데, 양장 보조월급이 좋았지. 월급을 타니까 하얀 고무신을 5켤레를 샀어. 4.3 때 어머니와 큰 언니 시신 수습해주는 삼춘들 공갚으려고 갖다 드렸는데..."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2. 경제활동(經濟活動)에 대한 기억과 현장

(2) 중산간마을

- 중산간마을 대부분 밭농사 (조, 보리, 콩, 고구마, 메밀 등)와 축산
- 부모님의 밭일을 도와주는 형태
- 본격적인 돈벌이 위해 육지로 상경
  : 방직공장, 기술연마 (양장, 한복), 가사 도우미, 시장 일꾼 등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 황 ㅇ 선 (유아교육 산증인)

"교편생활을 하다가 그만둬서 제주시로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어린이들과 함께 했던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아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같이 뛰노는 그런 유아학교를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한 나머지 저희 능력으로는 유치원을 경영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그때에 마을마다 탁아소가 있었습니다. 그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승격시키면서 나라에서 전부 지원을 해줬어요. 교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가든지 유치원을 가든지 모두 도와줘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2. 경제활동(經濟活動)에 대한 기억과 현장

(3) 그 밖의 경제활동

- 여자경찰 공무원, 군수업체 사무직원, 양장점 운영
- 중개상인, 상점 (만물상) 운영, 파독간호사, 오일장 장사
- 고무잠수복 제작, 영귤재배, 유아교육자, 건설현장 여성일꾼 등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3. 삶에 대한 기억과 현장

(1) 시대를 잘못 만난 탓

- 격동의 인생유전, 시대 잘 못 만난 탓이라 기억
- 험난한 시대 거쳐왔기에 지금의 삶은 '임금님 삶'이라 평가

(2) 배움에 대한 아쉬움

-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움의 혜택에서 제외
- 늦은 나이에도 배우려는 열정 대단 (만학 의지)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3. 삶에 대한 기억과 현장

(3) 주체적인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당당함
- 주체적인 경제활동 왕성히, 가정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 '부지런함' 무기로 다진 가정경제 초석

(4) 자녀 교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
- 배움에 대한 아쉬움 많았던 만큼 자녀교육에 더욱 더 열심히
- 자녀 교육에 힘썼다는 뿌듯함, 본인에 대한 자부심으로 연결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 제주여성 허스토리)

3. 삶에 대한 기억과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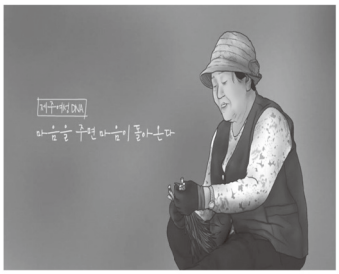
(5) 자신의 길 묵묵히
- 토종을 지키는 뚝심 (식품명인, 명창, 토종 농사꾼 등)

(6) 스스로 나침반이 되어 길 개척
- 여성진출의 영역확장 (유아교육, 영귤재배 등)

(7) 정직한 노동, 부지런함, 공 갚는 마음, 조냥 정신 등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제주여성 허스토리)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자신의 삶에서 뽑아낸 이야기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과거의 새로운 탄생

-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中 -
(스테틀라나 알렉시예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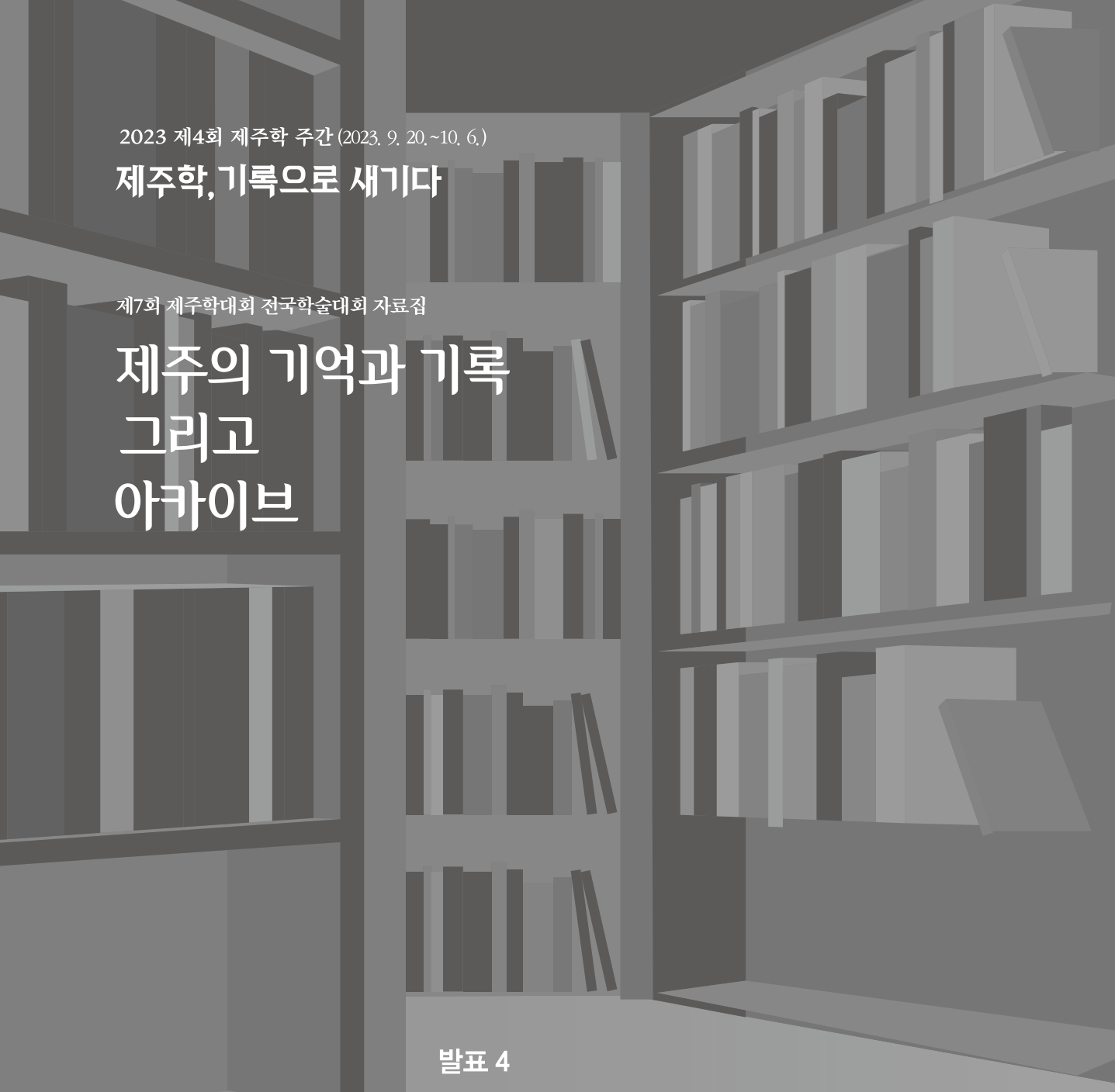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사건의 역사 뿐 아니라
감정의 역사 기록

-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中 -
(스테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영상 Archive (제주여성 생애사)

한 사람의 시간(時間)은
영상기록(記錄)으로 역사(歷史)가 된다.



2023 제4회 제주학 주간 (2023. 9. 20.~10. 6.)

제주학, 기록으로 새기다

제7회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발표 4

기억과 기록의 네트워크로서 제주학 아카이브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기억과 기록의 네트워크로서 제주학 아카이브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기억과 기록의
네트워크로서
제주학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2023. 9. 20.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목차

1. 제주학 아카이브 현황
2. 기억과 구술을 기록하는 제주학 아카이브
3.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할 것인가?
4.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1. 제주학 아카이브 현황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1) 지역학 기록물 수집, 기록화, 관리의 원칙

- 진본성: 생산 주체 및 명시 시점에 생산되었는지 증명 가능
- 신뢰성: 내용이 사실을 증명하고 이후에도 이를 증명
- 무결성: 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
- 이용가능성: 물리적 논리적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재현·해석이 가능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2)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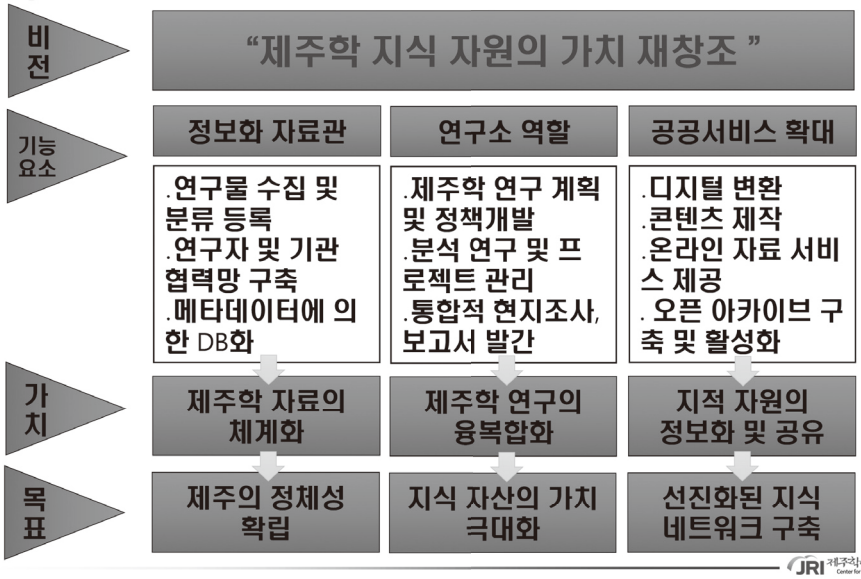
- 지역학 자료의 수집, 분류, 디지털화 연구, 대국민 홍보 서비스를 위한 전문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 제주 관련 고문서, 고문헌, 제주학 단행본, 논문 등의 연구물, 생활문화에 대한 구술이나 영상자료(CD, DVD), 사진, 음향(구술) 등, 기본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료 메타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센터의 기능 확대
- 21C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자원의 가치창조와 콘텐츠화 및 산업화를 위한 지식 자원으로 활용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3) 배경 및 필요성

-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원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전시 및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원천 자료들이 필요함
- 생활사 혹은 구술사, Life Story 등 사라져가는 민속영상 기록의 체계적인 수집 연구가 시급함
- 다양한 기록자료(연구물, 사진, CD롬, 녹음테이프, 비디오, 필름 등)를 수집, 보존, 분석, 연구를 수행할 기관이나 기구(직제)가 필요함

4) 비전과 목표



2. 기억과 구술을 기록하는 제주학 아카이브

1) 추진배경

-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제주인의 삶과, 자연,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제주 세대들에게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전해줌으로써,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제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
- 도·내외 산재해 있는 제주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집대성의 필요성 제기
- 구축된 다양한 자료의 접근성 강화 및 문화자원으로서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화 추진

2) 추진경과

- 2012. 8월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014. 4월 제주학 인터넷 온라인 아카이브 오픈(http://www.jst.re.kr)
- 2014~2023년 현재 53,000여건의 문헌,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자료 구축 및 서비스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3) 아카이브 구축 현황 및 활용 성과

- 역사: 26,270건/ 민속: 16,672건/ 언어: 1,824건/ 해녀: 1,728건/ 자연유산 등 기타: 7,300여건 등 53,000여건 제주 관련 자료 구축
- 제주학 아카이브 방문자수 400,000여명(매년 4만여 명)
- 제주학 아카이브 페이지뷰수 2,800,000여회(매년 25만여 회)
- 제주학 아카이브 콘텐츠 활용 사례
  - 2021년 제주문학관 상설전시실 조성 영상자료 제공
  - 2021년 JIBS '그때 그 시절 제주' 방송 사진자료 제공
  - 2021년 미디어센터 '제주문화 VR 제작'을 위한 영상자료 제공
  - 2021년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영상자료 제공
  - 2021년 세계유산본부 갓문화관 전시자료 음향, 영상 제공
  - 2022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자료 제공
  - 2023년 JTBC 톡파원25시 방송 영상자료 제공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4) 아카이브 기획 사업 추진성과

(1) 아카이브 자료 공개수집 사업

- 선정된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시상 및 저작권료 지급
- 선정된 자료의 아카이브 콘텐츠로 구축

• 2020년 제1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 주제: 제주의 마을제(사진 3,000여점, 동영상 12편)

• 2021년 제2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 주제: 제주의 관혼상제(사진 1,000여점, 동영상 7편)

• 2022년 제3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 주제: 우리 마을 옛사진(사진 1,200여점)

• 2023년 제4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 주제: 제주의 옛사진(9월말까지 공개수집 중)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2)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시민 기록자) 양성 사업

- 시민참여형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체계화 및 콘텐츠 구축사업 참여

• 제1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개설 및 운영
- 2021년 11월 11일 – 12월 14일(총 10강)
- 총 28명 수강신청하여 23명 수료
- 2022년 심화과정 수료 후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로 활동

• 제2기(2022년) 심화과정 7강 운영, 15명 수료/기초과정 8강 운영, 27명 수료

• 제3기(2023년) 심화과정 10강 운영, 15명 수료/기초과정 10강 운영, 30명 수료

• 2024년 공식적인 시민 아키비스트 발대식 후 본격 활동 예정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기초과정, 심화과정)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3) 제주의 마을지 기록화 사업

- 2022년부터 제주도 각 마을에서 발간한 향토지, 마을지 등 수집 ➔ 디지털화 및 저작권 확보 ➔ 아카이브 구축 ➔ 공개 서비스
- 2023년 현재 총 80여권의 마을지 수집, 30여권의 마을지에 대한 디지털화 및 저작권 확보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자료실에서 구축하고 있는 마을지 자료 공유 및 공개 서비스 협의 중

5) 진단 및 개선 방안

(1) 현 진단

-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구축한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공개 자료가 분야나 출처 측면에서 제한적인 상황임
- 관공서, 공공기관, 개인소장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수집에 따른 저작권 해결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운영인력 및 수장 공간 부재, 정보시스템 용량 부족 등으로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2) 개선 방안

- 도 내·외 산재해 있는 제주관련 중요자료의 체계적 자료수집 및 DB화, 정보제공서비스를 위하여 제주학 아카이브의 확대구축 및 전담 운영조직 신설의 필요성 제기

  - 현재 아카이브 전담인력 1명 → 독립기관 설립 및 전담조직 구성

- 도내 유사 아카이브 시스템의 통합화 및 정보제공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제주학 포털 아카이브 개설
- 오픈 아카이브 활성화

  -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을 통한 기록문화 저변 확대 및 아카이브 자료 구축 활성화

  - 양방향 소통체계 구축을 통한 자료 감수시스템 구축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3.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할 것인가?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1) 기억과 구술, 기록의 발현 체계

기억은 어떤 역사적 사건(주관적 판단)에 대해 보거나 듣거나 느낀 것이다. 기억은 원래 증인의 감각경험으로서 원초적인 형태로 증인의 감각 기관에 머물러 있거나 개념 작용을 거쳐 뇌에 저장된다.

이 단계에서의 '기억'은 증인 내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가치는 없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망각되거나 혹은 증인의 다른 개념 장치에 의해서 변질된다.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이 같은 원초적인 기억이 역사적인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몸 밖으로 나와야 된다. ➔ 발화, 구술, 기술

구술되거나 글로 기록될 때 비로소 그것은 역사와 관계를 맺게 된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사료'라고 부른다. 기억은 이렇게 '기록'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획득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글이나 말로 표현되는 단계에서 본의건 본의 아니건 축소, 변질, 왜곡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과 기록은 동일하지 않다. 기억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역사가는 다시 자기의 관점에 따라 기록을 해석하고 또 선별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 피에르 노라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기억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현재 지향적인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출발하며, 과거의 현상이 아니라 현재의 현상이다.

다시 말해 기억은 과거의 경험이 밀랍 판의 압인(押印)처럼 고정된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 안병직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 집단적 기억의 매체로서 이야기(설화-신화,전설,민담) 문화
- 제주의 풍부한 신화와 전설-살아있는 신화와 제의(굿)
- 기억을 '튼내어' 구술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이 아카이빙
-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집단기억을 끊임없이 재생산 ➔기록화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2) 기록아이템 선정과 기록화 방향

지역학 아카이브의 기록대상 선정

- 고유성: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무형 대상에 대한 조사와 기록화
- 전파론: 본래의 원형 전승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원형이 남게 되는 문화현상
  ➔ 대표적인 사례: 제줏말, 포제 등
- 독립발생설: 지역의 토착적 환경 속에서 생성된 지역 고유의 개성적 역사와 문화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제주 도민만이 기록할 수 있는 제주의 고유문화-문전제



문전제 유래
- 제주 무속의 문전본풀이
- 제주 가정신앙의 한 형태가 확장된 것
- 제사에 따라온 잡귀잡신을 위한 것
- 제사에 찾아온 웃대 조상신들을 위한 것
- 기타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제주 도민만이 기록할 수 있는 제주의 고유문화-본향당 굿문화



"본향당이란 제주사람들, 특히 제주 여인네들 영혼의 동사무소, 요즘 말로 하자면 주민센터예요. 제주 여인네들은 자기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본향당에 와서 신고한답니다. '아기를 낳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사고가 났다, 돈을 벌었다, 농사를 망쳤다, 육지에 갔다 왔다, 자동차를 샀다, 우리 애 이번에 수능시험을 본다, 우리 남편 바람난 것 같다,' 이런 모든 것을 신고하고 고해바칩니다. 제주 신의 중요한 특징은 신과 독대 한다는 점입니다. 제주의 신을 할망(할머니)이라고 해요.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자애로움이 있잖아요. 여성은 소문 내지 않고 자기 얘기와 고민을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답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런 하소연을 함으로써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겁니다. 심신의 카운슬링 상대로 할망을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순이 시인의 대담)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포제(리사제)





제주의 마을공동체 제의에서 당굿의 쇠퇴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유교식 포제는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여러 행정기관의 지원과 남성 중심의 마을 운영이 강화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남성 중심으로 거행되는 포제이지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공동체의 주체들이 다함께 준비하는 마을공동체 제의이기에 사실상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결속과 후속세대의 양성 등 긍정적 기능이 발휘되고 있어 그 전승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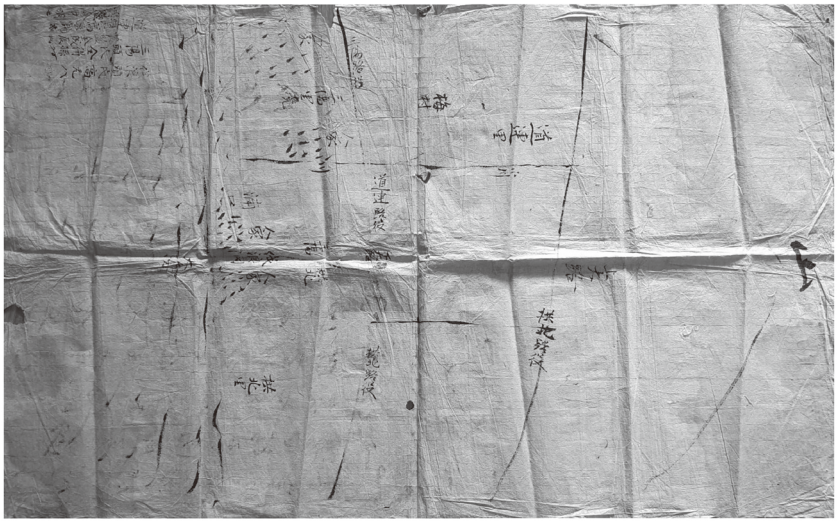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해녀문화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마을문서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갓일(양태장)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제주 일노래(민요)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HDMx8ESCYo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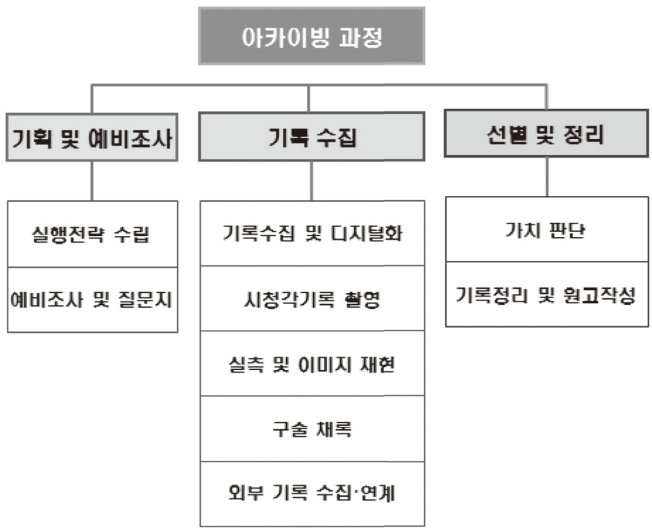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미륵불(서자복)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진정성" Authenticity
구심적 전승

VS

"무대화된 고유성"
Staged Authenticity
원심적 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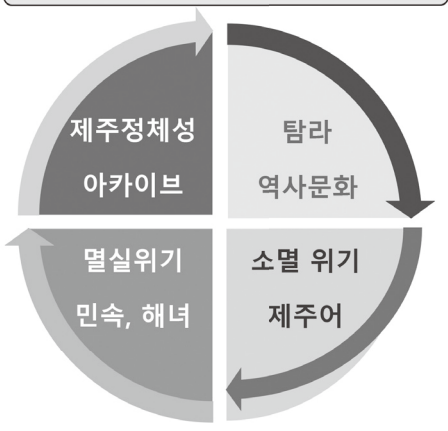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탐라 제주의 고유성을 가꾸는 제주학 아카이브

신화의 섬, 살아있는 역사문화박물관



조사연구, 제주정체성 발굴, 확산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4.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 집단기억의 기록매체로서 ‘지역학 아카이브’

- 누구나 말하듯이 기록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설계와 구축
- 매체와 디지털 환경, 멀티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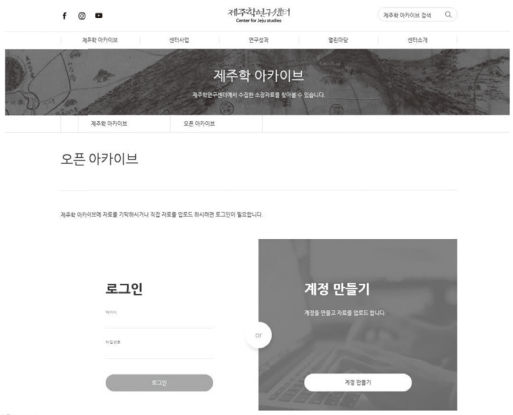
- 집단적 기억의 매체로서 이야기(설화-신화,전설,민담) 문화
- 제주의 풍부한 신화와 전설-살아있는 신화와 제의(굿)
- 기억을 '튼내어' 구술하고, 이를 기록(아카이빙) ➔ 스토리뱅크
-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집단기억을 끊임없이 재생산➔기록화



- 제주 신화 본풀이는 심방에 의해서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단골과 도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임.
- 기록이 축적되고 원활하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의미화가 강화되고 마침내 '지역정체성'으로 자리 매김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 제주학연구센터 오픈 아카이브
- 자료 등록 양식에 따라 누구나 사진, 영상, 음원 등을 업로드
- 업로드한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작성(인용 출처 명기)
- 등록된 자료 감수(전문가 선정)
  ➔ 수정보완 ➔ 완료
- 지역(마을)과 일반에게 서비스 제공
  ➔ 누구나 자료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과 주민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역사문화 자료로 활용
  ➔ 지역정체성 확립 및 지역(마을) 박물관(전시관) 유물자료로 활용
  ➔ 다양한 작품과 축제, 관광 등을 위한 창작소재로 활용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시민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비전

- 학자 등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현지적 시점에서 기록하는 지역학 아카이브
- 누구나 쉽게 기록하고 업로드 할 수 있는 생활형 아카이브
- 일방적 업로드가 아닌 쌍방향 의견 제시와 수정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진화형 아카이브
- 세대와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전승'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정체성 아카이브
-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향토형 아카이빙

기억, 기록, 아카이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향후 추진 과제〉

(1) 도내 아카이브 통합 및 도외 네트워크 강화

- 도내 산재해 있는 제주학 관련 아카이브와 네트워크통합을 통한 제주학 포털 아카이브 사이트 구축 및 운용
- 도외 지역학 아카이브와 네트워크 공고화를 통한 벤치마킹 및 질적 도약 모색

(2) 시민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 오픈 아카이브 활성화(도내 전문가 풀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
-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활성화(심화과정 확대 등)
- 향후 시민 아키비스트 운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모색

(3) 아카이브 자료의 킬러 콘텐츠화 모색(스토리뱅크, 문화산업연계 등)

(4) 초상권 및 저작권 규범 확립 및 공공누리 체계 고도화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과 기록의 네트워크로서 제주학 아카이브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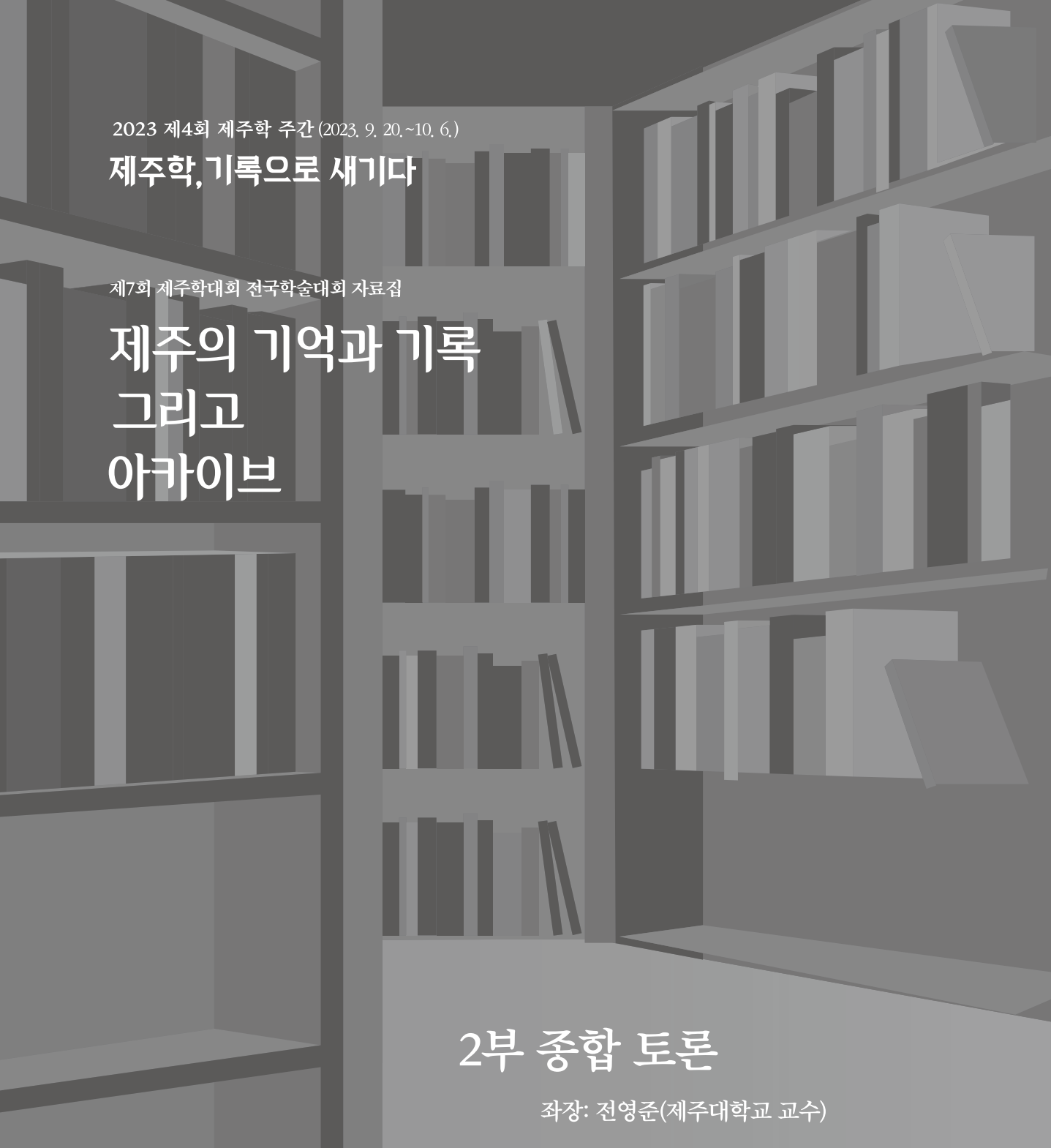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2023 제4회 제주학 주간 (2023. 9. 20.~10. 6.)

제주학, 기록으로 새기다

제7회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2부 종합 토론

좌장: 전영준(제주대학교 교수)

제주학 아카이브의 양적·질적 성장을 기대하며

박지훈
공주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의 종합토론자 중 1명으로 참가하게 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이며, 공주학연구원의 자료실장인 박지훈입니다.

오늘 김재순 관장님의 기조발표를 포함하여 전경목 교수님(한국학중앙연구원), 정연경 교수님(이화여대), 안현미 대표님(스토리AHN) 및 조정현 전문연구위원님(제주학연구센터)의 주제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기억과 기록의 네트워크로서 제주학 아카이브 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공주학연구원의 자료실장인 관계로 주제발표 4 즉, 조정현 전문연구위원님이 발표한 제주학 아카이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본 토론에서는 제주학 아카이브가 미래에는 현재 보다 양적·질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길 기원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크게 2가지 건, “첫째,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특징 소개, 둘째, 제주학 아카이브에 관한 몇 가지 질문 및 제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공주학 연구원의 아카이브 특징

공주학연구원은 인천, 서울 등의 지역학연구센터와 달리 지자체 단위의 아카이브 센터로는 처음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공주학 아카이브에서 현재까지 수집한 기록물은 약 84,679건인데, 이들 대부분은 민간 기록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간행물류 13,050건, 사진류 58,118건, 시청각류 549건, 문서류 11,951건, 박물류 929건, 구술류 83건입니다.

본래의 설립 목적은 관공서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 중복사업을 통한 예산낭비를 줄이며,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을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공주학연구원이 공주와 관련된 각종 사업자료와 결과물을 수집하여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공서의 산출물 못지않게 민간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그러한 소중한 자료들이 알려지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폐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주학 아카이브에서는 가장 먼저 공주학과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역 시립도서관이나 연구기관, 국가정보시설로부터 자료의 종류와 형태를 막론하고 공주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목록을 토대로 수집활동을 시작하고, 그 경험을 통해 시사점을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에 어느 조직보다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공주학 연구원만이 갖는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과 지자체의 대표적인 협력사업 입니다.

공주학연구원의 아카이브 사업은 공주대학의 인적 자원과 공주시의 경제적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아직 몇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자료를 공유합니다.

공주학연구원에서는 구축된 아카이브 산출물을 공주대학이나 공주시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주와 공주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비롯하여 모든 수집품은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3) 해마다 테마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주학연구원에서는 해마다 연초에 자료 수집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전문가 자문 및 시민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가능한 많은 수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계룡산, 공산성, 금강, 제민천, 백제문화제, 공주고등학교, 공주여자사범학교 등 주요 연관주제(키워드)를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형태입니다.

4) 지역민의 정서에 공감하며,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공주학연구원에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자료 수집 공모전을 시행하여 시상과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 자료 공모전의 주제는 "당신의 추억, 나누면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됩니다."였습니다. 이번 해에는 백제문화제 관련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는 한편, 시민들이 가진 옛 성적표나 학교자료, 공주 소개 자료, 공주 명소에서 찍은 사진 등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시상하였습니다.

5) 공주학연구원에는 시민활동가가 있습니다.

연구원이 교수나 전문연구원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면 자료의 위치나 소장가, 지역의 옛 모습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주학연구원에서는 시민활동가를 임명하여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6) 공주학연구원은 공간과 시간을 시민과 공유합니다.

공주학연구원에는 고마나루실이라는 소강당이 있고, 회의실도 1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대학 구성원들은 언제든 장소대여 신청을 하여 원하는 학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주학연구원에서 수집한 자료 중에는 지금은 사라져서 주민들의 추억에만 남은 장소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전시회 또는 패널 전시, 문화재야행, 지역축제 시기에 공개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옛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7) 주요 소장처와 접촉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공주학연구원에서는 오랜 기간 지역 활동을 하며 공주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지역 연구자와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수집을 전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도소 및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역사자료, 초중고 학교의 역사자료실, 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경우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량의 소장 기록물이 있는데, 아카이빙의 필요성에 대한 불인식과 관리자의 부재 등으로 관리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상호협약을 통해 기록물을 공유하고 아카이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수집방법은 상대방에게도 DB제공이라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여러 기관과 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제주학 아카이브에 관한 질문 및 제안

1) 지역 대표대학과의 상생을 위한 연계 여부

공주학 아카이브 사례처럼, 제주학 아카이브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 국립대학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2) 지역 축제 흥행과의 긴밀한 연계 여부

공주학 아키이브 경우, 시의 가장 큰 지역 문화역사축제인 백제문화제(전국 3대 축제의 하나)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연계를 통해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주학 아카이브에서도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 지역 시민운동단체와의 활발한 연계 여부

공주학 아키이브의 활동에서 그 배경에 국립공주대학교의 관련 분야 교수들을 포함하여 특히 문화유산대학원의 지원 및 지역의 오피리언 리더들로 구성된 시민운동단체 공주향토문화연구회의 왕성한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제주학 아카이브에서도 지역의 어떤 기관(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4) 자료 수집을 위한 신박한 아이디어 보유 여부

조정현 전문연구위원님께서는 2014. 4월 제주학 인터넷 온라인 아카이브 오픈 이후 제주 관련 자료 구축은 약 53,000여건(역사 26,270건, 민속 16,672건, 언어 1,824건, 해녀 1,728건, 자연유산 등 기타 7,300여건)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5년에 오픈한 공주시 아키이브에서는 현재까지 수집돤 기록물은 약 84,679건 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치만 비교하면, 현재 지역의 소도시인 공주시(인구 약 10만명)에 비해 6배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의 아카이브 수집 자료 건수가 적습니다. 조정현 전문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양적·질적으로 많은 우수한 자료 축척이 제주 아카이브의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료 수집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5) 제주학 아카이브만의 특색화 보유 여부

제주학 아카이브만의 특색을 살린 주제 개발 및 그와 관련된 자료 구축을 기대해 봅니

다. 예들 들어 첫째, 우리나라 도서문화의 자료 구축, 둘째, 한국과 일본의 문화ㆍ역사의 연결고리 자료 구축 등입니다. 발표 때, 유사한 내용을 들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박지훈의 토론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토론문

김치완
제주대학교 교수

2023년 제4회 제주학 주간은 ‘제주학, 기록으로 새기다’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를 주제로 한 전국학술대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문화’를 주제로 한 초청 특강, ‘비문(碑文)에 새긴 제주의 역사와 기록’을 주제로 한 제주학 역사 탐방, ‘사전(辭典), 익어가다’를 주제로 한 제주어 포럼 ‘눌’로 구성된 알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로 제7회를 맞은 제주학대회에 종합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특별한 마음입니다. 다만, 기조발표와 주제발표 4개에 대한 종합토론 형식으로 기획되어서, 다섯 편의 발표문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기가 쉽지는 않게 되었습니다만, 발표문을 되짚어 가면서 과문(寡聞)한 탓에 생긴 짧은 생각과 감상을 두서없이 서술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조발표인 〈제주인의 기억과 기록,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감상입니다. 기조발표에서 “1992년도에 역사학전공 고문서 판독이 가능한 전문인력 1명을 최초 임용”하였다는 구절은 김재순관장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정부기록연

구소 연구직 1호로 입사하여 나라기록관장을 역임하신 현장전문가이실 뿐 아니라, 제주 4·3 진상규명을 위한 수령인명부 최초 발굴을 주도하신 공적으로 지난 2021년 명예도민에 선정되셨습니다.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불민한 후학이므로,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산증인인 관장님의 기조발표를 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따로 사족을 달기가 송구할 따름입니다. 특히, "기록관리제도를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가치중립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집행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일성(一聲)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에 국가기록원의 권역별 아카이브스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함께 중장기 발전과제로 제주도청 소속 아카이브스 시설과 국가기록원소속 권역별 아카이브스 시설이 상호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델"을 중장기 발전과제로 하되, "제주도에 관한 주제별 디지털 컬렉션 구축작업을 연례 사업으로 추진"하는 단기 발전과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주신 점도 현장전문가의 경험에 기초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현재 제주도청 소속 아카이브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이러한 청사진을 실현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관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주도정의 교체와 관계없이 가치중립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려면, 제주학연구센터의 독립성 확보 및 그동안 지역학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제주학회 등과의 협력 강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편의 주제발표는 고문헌과 구술자료, 영상, 그리고 아카이브 등 다양한 기록자료 유형과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일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주학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면밀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상으로 먼저 밝히고, 각각의 주제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경목교수님의 〈고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내외의 시선과 기록 전통〉에서는 제주도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는 고문헌에서 '감시와 통제'의 외적 시선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유교 이념의 내면화'에 집중하고 있는 내적 시선의 사례를 통해서 '편향된 시각과 이를 보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기조발표에서 기록물 관리의 가치중립성 확보를 역설하였다면, 같은 맥락에서 자료 수집과 기록물 생성, 그리고 생성된 기록물을 연구하는 태도에서의 가치중립성 확보를 역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이를 위해 "지배자의 시각이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시각의 교정이나 보정"이 "연구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며, "다른 계급의 이익이나 이해가 반영된 자료 예컨대 한글로 작성된 자료나 문자로 작성되지 않은 구술자료 등을 활용"해야 함을 환기해주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연경교수님의 〈기억의 기록: 왜 구술 자료가 중요한가?〉는 전경목교수님께서 주의를 환기해주신 "구술자료"를 기억과 기록, 구술, 구술사, 구술사의 특성, 구술 자료의 국가자원화, 구술 자료의 전승 등으로 꼼꼼하게 분석한 발표입니다. "어디에도 거의 남겨지지 않은, 역사로부터 숨겨져 있는 집단의 경험과 관점을 역사적 기록 안에 다루고 있다는 것"을 구술사의 가장 분명한 기여로 평가하면서,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인정함과 동시에 역사가의 가정과 판단에 도전함으로써 역사의 초점을 이동하고 새로운 탐구영역을 열어주고 역사의 내용과 목적을 모두 변화시키는 수단"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구술사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로는 "과거 경험의 사실성과 재구성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고정 관념과 구술이 제기하는 기억과 서술의 주관성 사이의 불협화음 때문"이라는 점을 손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사가 구술자의 과거 구술이 반영하는 현재를 파악하기 위한 기억방식이 되고 디지털 사회 속에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상호주관성을 획득하는 네트워크로서 기능하는 시대"가 되고 있으므로, "구술사가 주는 많은 가능성과 구술자료가 갖는 특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어 새로운 역사 쓰기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술사의 특성으로 손꼽아주신 구술성, 서사성, 주관성, 신뢰성, 개별성, 공동작업 등과 한국의 구술사 일별은 구술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

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상황 비교, 민간 구술 자료 수집의 중요성, 구술 자료 수집 및 활용의 기반, 기억하기, 기록하기, 역사쓰기 등을 통해서 구술 자료의 국가자원화 필요성을 역설한 점은 "구술 자료와 구술사가 가진 힘에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되는 계기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술 자료가 수집만이 아니라 활용 및 보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세대를 넘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구술 자료의 전승을 강조하신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토리AHN대표이신 안현미교수님의 〈제주인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는 부제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인의 기억과 현장"이 앞선 발표의 좋은 사례가 된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로부터 숨겨져" 있는 집단 가운데 하나인 제주 "여성들의 역사를" 통해 "제주여성이 제주역사입니다!"라는 선언으로 힘차게 나아간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개해주신 "제주여성생애사 허스토리"는 날 것 그대로의 제주 여성들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제주역사"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감동적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뽑아낸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과거의 새로운 탄생"으로서, "사건의 역사 뿐 아니라 감정의 역사 기록"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끌어낼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은 영상기록으로 역사가 된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할 것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조정현 전문연구위원님의 〈기억과 기록의 네트워크로서 제주학 아카이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라는 부제처럼,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발표에서는 지역학 기록물 수집, 기록화, 관리의 원칙과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의 목적, 배경 및 필요성, 비전과 목표를 꼼꼼히 되짚으면서, 제주학 아카이브가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제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4년에 인터넷 온라인 아카이브로 출범한 제주학 아카

이브 구축 현황 및 활용 성과를 확인하면서 제주학 아카이브가 기록물 전승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민참여형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시민 기록자) 양성 사업"이 무르익어 2024년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 하니, 이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었습니다. 다만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자료가 현재 저작권과 체계적 관리 문제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발표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선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제에서 강조하였듯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섯 분의 발표를 거칠고 성글게 요약하면서 종합토론자로서 난망한 감정이 드는 까닭은 구술사 또는 기록물 관리 분야에 대해 과문한 비전공자인 탓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전공자도 너무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셔서 의문이나 반론을 제기할 틈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겠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학술대회 종합토론자인만큼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발표자께 한 가지 공통 질문을 사족으로 달아볼까 합니다.

벌써 7회를 맞이한 제주학대회는 말 그대로 "제주학"의 성대한 잔치입니다. 제가 소임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은 1967년 출범 이래 제주대학교 최초의 법정연구소로서 "제주학 연구"를 표방해왔습니다. 이는 지역학으로서 제주학, 곧 제주 정체성 연구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출범 당시부터 추진되어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제주 정체성, 곧 제주다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고,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주다움은 어느 특정한 시기와 집단에 형성되고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형성되고 전승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꼭 "제주"의 기억, "제주"의 구술사와 영상 등과 같은 "제주"의 기록, "제주"의 아카이브라고 특

정할 수 있는 “제주다움”으로는 무엇을 손꼽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것이 제주라는 장소성과 역사성에 기초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토론문

김나영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해당 세미나는 도내를 비롯한 국내·외 산재되어 있는 제주학 아카이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관리(정리) 및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해 현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에 각 논고들의 내용 중 궁금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질의는 다음과 같다.

발표 1) 「고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내외의 시선과 기록 전통」(전경목)

이 글은 19~20세기 제주도 각 지역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를 통해 제주도 내부와 외부라는 상반된 시선(입장)에서 그 당시 제주도 사회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필자는 총 19건의 제주도 문건(첩정, 서목, 명문 등)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함축적인 결론을 내고 있으며, 이를 표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외적 시선: 중앙(정부)로의 감시와 통제의 대상

- 문서 1~3번 : 내륙으로 왕래(입출항)하는 선박 및 승선자, 선적물 단속
- 문서 4~6번 : 관에서 사적인 가축의 무단 방매 및 사육 단속
- 문서 7~10번 : 작은 포구의 출입사항 보고 체계(기찰장→조방장→겸찰리사), 공마선의 준비·단속 사항, 선주에 대한 단속 등
- 문서 11~12번 : 토지 등 매매시 관(官)에 신고 및 거래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 마을의 행정 책임자를 보증인으로 참여토록 함.

연번	문서내용	연도	발급자	수급자
1	첩정(牒呈)[1] / 입포문서(入浦文書) 내륙과 왕래하는 선박(승선자, 선적물 등) 단속	1893년(고종 30) 정월 15일	조천진 치총	겸찰리사
2	첩정(牒呈) / 입송문서(入送文書) 당시 찰리사 이규원에게 온 물품 및 해남 장교가 비밀 관문을 지참해온 사실 보고	1893년(고종 30) 3월 4일	조천진 조방장	겸찰리사
3	첩정(牒呈) 추자도로 가는 선박의 출항 사항 보고	1893년(고종 30) 10월 12일	조천진 조방장	겸찰리사
4	첩정(牒呈) 소7마리를 육지인에게 무단 방매 및 체포 사실 보고	1898년(광무 2) 9월 27일	서귀포진 조방장	겸찰리사
5	서목(書目)[2] 우도 효자 9살 아동에게 호계(戶鷄)에서 닭 2마리 포상 및 고달인(高達仁) 이름을 지어줌	1869년(고종 6) 5월 4일	별방진 조방장	겸찰리사
6	고목(告目)[3] 광견을 도살하라는 훈령에 의거, 그 이행사항 및 광견에게 물린 사실 보고	기해년 7월 12일	서홍리 기찰장	이장 or 동장

1) 첩정(牒呈) : 조선시대 하급관아에서 상급관아로 올리는 문서
2) 서목(書目) : 조선시대 하급관아에서 상급관아로 올리는 원장(原狀, 첩정 또는 문상)에 구비(具備)하는 문서
3) 고목(告目) : 조선시대 서리 및 향리가 상관에게 공적인 일을 알리거나 올리는 간단한 문서

연번	문서내용	연도	발급자	수급자
7	첩정(牒呈) / 입포문서(入浦文書) 애월진 조방장이 외도 (포구) 기찰장에게 보고받은 선박 입항사항을 보고	1893년(고종 30) 4월 9일	애월진 조방장	겸찰리사
8	첩정(牒呈) 화북진·조천진 공마선 준비·단속사항 보고	1893년(고종 30) 4월 29일	화북진 조방장	겸찰리사
9	첩정(牒呈) 선주의 공백으로, 진졸을 파견해 선주를 데려옴을 보고	1893년(고종 30) 10월 13일	조천진 조방장	겸찰리사
10	첩정(牒呈) 진상마 1필이 죽어 보마(補馬)로 충당한 사실 보고	1889년(고종 26) 6월 9일	조천진 조방장	겸방어사
11	『임자신정통식(壬子新定通式)』 토지매매 신고 절차 표기	1852년(철종 3)	-	-
12	명문(明文)[4] 강주팔이 이재연에게 보리밭을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	1904년(광무 8) 정월 초9일	강주팔	이재연

◯ 내적 시선: 유교 이념의 내면화

- 문서 1~7번 : 효자 정려 상황, 유학(유교) 관련 직책(직역) 명기

연번	문서내용	연도	발급자	수급자
1	서목(書目) 고종진의 아들(고달인)이 손가락을 잘라 아버지를 살린 사실 보고	1869년(고종 6) 5월 4일	우도의 삼소임	겸찰리사
2	완문(完文)[5] 효자 고달인에게 호역(戶役)과 신역(身役)의 면제 등 포양	1869년(고종 6) 6월일	제주목사	고달인

4) 명문(明文) : 토지 등을 거래하면서 작성한 문서

5) 완문(完文) : 조선시대 관부(官府)에서 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 인정서의 성격을 지님.

연번	문서내용	연도	발급자	수급자
3	소지(所志)[6] 자신 아들이 형(고달인)의 양자이므로, 기존 특혜 지속 인정 요청	1889년(고종 26) 8월일	고달인의 동생 고준경	제주목사
4	준호구(准戶口)[7] 좌면 세화리 제3통 1호 청금훈장 오장준의 준호구	1867년(고종 4) 3월일	제주목	오장준
5	소지(所志) 접수(接首) 오창권이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 요청	1898년(광무 2) 6월 12일	오창권	향교 접중(接中)
6	소지(所志) (정의)향교 훈장 오창권이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 요청	1899년(광무 3) 4월일	오창권	제주목사
7	소지(所志) 미리 봐둔 아버지 묘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조사·처벌 요청	1899년(광무 3) 10월일	오창권	군수

본 논고의 내용 중 궁금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질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필자는 조선후기 12건의 제주도의 문건을 통해 외부적 입장에서 제주도는 중앙의 감시와 통제, 수탈의 대상(처)으로 보고 있다. 토론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당시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비춰보았을 때 제주도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보는데, 내륙 지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감시와 통제의 범위, 강도 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궁금하다.

② 또한 필자는 효자 고달인 정려 내용과 관련한 3건 문건을 매개로 제주도 내부적으로 유교 이념의 내면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기별로 차이(제주도 경우 19세기>18세

6) 소지(所志) :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소청·민원·진정을 위해 관청에 올리는 문서

7) 준호구(准戶口) : 조선시대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 준 문서

기 60% 차지)가 있긴 하지만, 조선시대 유교적 사회 질서 체제 속에서 충신·효자·열녀·절부의 정표(旌表) 정책은 전국에 시행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표 정책에 있어 제주-육지와의 차이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린다.

③ 10~11쪽 오장준 주호 내에는 청금훈장, 유향별감, 향해유향좌수(鄕解留鄕座首) 등 육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교(유학) 관련 직역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 외 제주에서만 확인되는 직역명이 있는지 궁금하다.

④ 필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한 것으로 안다. 해당 대학(원)에서의 고문서의 수집 및 탈초·번역 인재 양성 사례를 비롯, 체계적인 고문서(고문헌) 아카이브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게재를 부탁드린다.

발표 2~3) 「기억의 기록: 왜 구술 자료가 중요한가?」(정연경)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주인의 기억과 현장」(안현미)

① 구술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확보 및 제공시 구술자의 기억 오류, 내용의 과장(포장) 등에 대한 대처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구술자에 대한 오류 수정[일반인들의 무비판적인 수용 예방]을 위해 채록자의 편집 등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됨)

② 구술자료(영상 등) 아카이브 제공 시 구술자의 선정 기준, 신상 정보, 채록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필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추가 설명 부탁드린다.

발표 4) 「기억과 기록의 네트워크로서 제주학 아카이브」(조정현)

① 토론자가 생각하는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애로사항과 대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애로사항과 한계점
- 각 기관(별표 참조)마다 생산된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 시스템별 차이 - 전문 인력의 부재 및 예산, 장비 부족 - 생산물 특성상 용량이 크므로 전문 데이터 관리 시스템 필요(데이터 유실 방지) - 생산된 기록물(전시물·영상)이 단순히 제공, 열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활용시 사용에 대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자료 이용의 혼선, 복잡한 절차)
대책 방안(아카이브 구축과 공유, 공개서비스)
- 제주학 아카이브(지역·문화·역사 등)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및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조직 필요 / ex) 제주기록원 등 * 전문 플랫폼 구축이 힘들다면, 기관 협력을 통한 정규 아카이브 구축 정규 인력 배치 제도화 필요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각 기관의 생산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 공개 수집을 통한 아카이브 DB 구축 및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사업, 제주학 역사편찬사업(호적자료 조사, 고문서 번역사업 등), 제주어 연구사업, 제주마을(민속문화) 기록화사업 등 여러 방면에서 제주학 아카이브의 보존·수집 등에 힘쓰고 있다. 이에 필자가 생각하는 체계적인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린다.

[별표] 도내 아카이브 생산 기관

구분	연번	기관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관	1	도 총무과(행정박물, 민간기록물)	도 부서
	2	도 세계유산본부(문화재 관련 기록)	도 부서
	3	도 4·3지원과(4·3 관련 기록)	도 부서
	4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1종 박물관
	5	감귤박물관	〃
	6	제주돌문화공원	〃
	7	해녀박물관	〃
	8	제주4·3평화기념관	〃
	9	김만덕기념관	〃
	10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1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2종 박물관
	12	제주세계자연 유산센터 세계유산전시관	〃
	13	항일기념관	〃
	14	서귀포시기당미술관	1종 미술관
	15	이중섭미술관	〃
	16	제주현대미술관	〃
	17	소암기념관	〃
	18	제주도립미술관	〃
	19	제주추사관	〃
	20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
	21	제주문학관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	22	제주학연구센터	〃
	23	제주문화예술재단	〃
	2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25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26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
문화원	27	제주문화원	〃
	28	서귀포문화원	〃
국공립 박물관	29	제주국립박물관	1종 박물관
	30	제주대학교 박물관	1종 박물관
	31	제주교육박물관	1종 박물관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토론문

정용복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 팀장

네 분의 발제문을 읽으며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 사회의 정체성, 역사, 지역민의 삶과 문화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학술대회가 기억과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보며, 지역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해 여러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토론해보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존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험과 지식의 전달과 공유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기억 연구

제주의 기억 연구는 전국에서의 연구 시작과 맥을 같이 하는 만큼 기억 연구에 있어서 선구적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기억 연구의 시작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현대사의 진

실을 규명하고 기억을 회복하기 위한 구술 작업이 지식인과 사회단체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구술 기록물들이 지역에서 이뤄진 최초의 구술 연구로 인정받고 있다.

제주 기억연구를 광의로 볼 때 지역 최초의 구술 증언 성과물은 1989년 5월 10일, 제주4·3연구소가 4·3사건의 진실 규명 작업의 목적으로 공동 조사를 거쳐 발표하며 2권으로 출간한 〈이제사 말햄수다〉이다. 이 자료집은 4·3 진상 규명과 4·3 연구에 크게 이바지했다. 증언 조사는 4·3 연구소가 창립한 이래 가장 중점적으로,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기억연구라 볼 수 있다. 조사된 녹취록은 4·3에 대한 1차 자료가 거의 없던 초기에 4·3의 진상 규명에 이용됐고, 최근 구술사나 생활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부터 이러한 미시사적 학문 연구의 기본자료가 되고 있다.

〈이제사 말햄수다 1, 2〉가 4·3에 대한 지역별 조사의 대표적 사례라면, 연구소 기관지 〈4·3 장정 1〉에 실린 '백조일손지지의 한을 넘어서'는 사건별 조사의 대표적 사례였다(제주4·3평화재단, 2017). 이 기억의 증언은 4·3 당시 모슬포 지역의 최대 인명 희생 사건으로 '섯알오름 옛 일본군 탄약고 터 학살 사건'을 연구원들이 유족을 만나 기억을 수집하고, 현장을 방문해 처음 세상에 그 전모를 알린 기획물이었다. 이 사건 외에도 4·3 연구소는 당시 처음으로 그 면모가 드러나던 소위 '잃어버린 마을'과 얽힌 지역민과 관계자들의 구술 증언을 채록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주 4·3 1000인 증언 채록'을 통해 1,028명의 지역민의 기억과 경험을 수집했다. 이는 후에 '제주 4·3 구술자료 총서'로 발간됐다.

제민일보의 장기 연재 기획물인 '4·3은 말한다' 역시 제주의 구술 증언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민일보는 1990년 6월 2일 창간호부터 '4·3'이 스스로 이야기하자는 뜻에서 '4·3은 말한다'를 10여 년에 걸쳐 456회 기획 연재할 정도로 제주 4·3에 대한 사료 조사와 함께 구술 증언을 했다. 연재 초기 '해방 전후의 시대 상황'을 집중적으로 재조명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에서의 미군정 실시 배경과 4·3 발발의 원인, '공산폭동'의 허구성을 밝혀내기도 했다. 특히 초토화 작전 시 도민 대학살의 근거였던 4·3 계엄령이 불법이었음을 밝혀냈다. 한편으로 초토화 작전 당시 학살 현장을 마을 단위로 낱낱이 취재 고발하면서 충격을

줬다. 제민일보 4·3 특별취재반은 이 밖에도 '다랑쉬굴 4·3 유해 발굴', '4·3 희생자 80%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 등의 특종을 쏟아내면서 4·3 진상 규명 운동과 4·3특별법 제정에 초석을 다졌다.

'4·3은 말한다'는 제주신문 4·3 특별취재반이 1989년 4월 3일 자 '4·3의 증언'이란 제하의 기획연재에서 이어진 것이다. 4·3 41주년이기도 한 이날 제주신문 1면 머리기사는 '40년 침묵의 비극사 입을 연다'로, 3면에 실린 '4·3의 증언' 첫 연재 기사는 '김순애 소녀가 겪은 4·3'과 '4·3의 시기 구분'으로 전면이 채워졌다. 첫 연재이니만큼 '4·3'의 비극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열세 살 소녀의 가족 수난사와 체험담을 실은 것이다. 메인 컷 제목은 "어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였다. 이와 함께 별도의 상자기사에서 1948년 4월 3일을 전후, '4·3' 이전 2기, 4·3 이후 8기의 시기 구분을 통해 향후의 전체적인 연재 방향을 시사했다. 제주신문 대하 기획연재 '4·3의 증언'이 1989년 12월 5일 자에 실린 제57회를 끝으로 도중하차했다. 제주신문 경영진이 사원들의 언론 자정 운동에 맞서 폐업을 단행하면서다. 언론사 폐업 자체가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언론의 4·3 진상 규명 작업 역시 계속 이어질지가 관심사가 됐다. 이와 함께 제주MBC가 1989년 4월 3일 구술 증언을 중심으로 한 4·3 특집 기획물을 보도, 지역의 신문과 방송이 본격적인 4·3 진상 규명을 위한 증언 작업에 나섰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기록이 부재하거나 왜곡된 현대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기억 연구가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음이 인식되기 시작했다(김귀옥, 2013).

또 다른 기억 연구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의 '일제하 제주도 전적지 조사팀'이 2005년부터 1년간 일제 강점기 일본군 전쟁 유적지 조사를 시행했다. 그 가운데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구술 채록을 시행해 55명의 기억을 바탕으로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을 출간했다. 또한, 김창후의 〈자유를 찾아서: 김동일의 억새와 해바라기의 세월〉은 제주 4·3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가족 해체, 사회적으로 민족 이산을 당했던 김동일의 생애사를 담은 구술 채록 자료집이다.

재일제주인 1세를 대상으로 한 기억 증언과 생애사 연구도 활발히 진행됐다. 고선휘(1996)는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 제주인 대상으로 1910년대

부터 1980년대까지의 재일제주인의 삶, 활동의 역사, 제주 사회와의 관계를 구술 조사했다. 재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2012, 2015)은 4·3사건을 경험한 밀항자에 대한 기억 증언을 통해 4·3사건 시기 제주도민이 놓인 상황의 파악을 통해 그들의 왜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어떠한 삶을 경험하였는가를 밝혔다. 한편, 유철인(1998)은 재일제주인의 밀항과 고향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뤘고, 안미정(2008)은 해녀 출신 재일제주인 1세 여성의 생애와 생활을 중심으로 초기 이주와 정착, 귀향에 얽혀 있는 사회문화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3)는 재일 제주인 기업가 10명의 기억연구를 통해 기업을 일구는 생애사를 살펴보았다. 조경희(2015)는 재일제주인 2명과 밀항으로 제주와 일본에 오간 경험이 있는 제주 사람 7명의 구술을 자료로 하여 제주 사람들의 밀항을 했던 시기별 밀항 성격과 의미를 되짚어보았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역민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이재영·정연경, 2018). 대표적으로 〈기억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2017)는 제주시 원도심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구술로 풀어낸 책이다. 즉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경험들이 자료로 탄생한 것이다. 최근에는 지역 토박이와 이주민의 삶에 대한 구술 기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여성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구술 생애사 채록이 진행되고 민속학이나 구비문학과도 연계되어 연구되고 있다.

제주학 발전을 위한 기록과 아카이브의 필요성

지역학은 문화적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리적 영역에서 교류되는 모든 현상에 관한 연구이다. 어느 학문 분야든 고유의 연구 대상과 관계되는 분야나 범위의 영역이 있기 마련이다. 지역학이 다른 학문과 상호배타적으로 구별돼 독립학문으로

존재하려면 고유의 연구 대상과 체계적 규명을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론, 이의 적용을 통한 보편타당한 지식체계인 이론의 정립에 있다(차배근, 2004, 15-16쪽). 특히 지역을 단일하고 동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여러 행위자나 세력 간의 관계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은 현상을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임영호, 2019). 따라서 지역학 연구는 지역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개인들과 집단, 지역공동체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제반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고유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지역학은 현상의 기술과 인과관계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예측과 통제를 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이뤄진다. 과학적 연구방법론은 어떤 연구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으로, 연구 대상을 연구목적에 맞도록 적절히 다뤄내기 위한 연구 방법을 포함한다. 과학적 연구의 목적은 현상을 기술(describe)하고 설명(explain)해서 그 현상에 대한 보편타당한 지식체계, 즉 이론(theory)을 정립함으로써 예측(predict)하고 나아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제(control)해서 인류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김옥태, 2016). 즉, 연구결과를 일반화시켜 관련된 모든 현상에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 과학적 연구는 직관, 아집, 편견, 상식, 권위에 의존하는 비과학적 방법과는 달리 공개성, 객관성, 경험성, 체계성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며, 현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이유는 보편타당한 지식체계라고 하는 이론의 정립에 있다. 지식체계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열거하거나 기록하는 기술, 그렇게 기술된 현상의 인과관계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분석을 통한 설명, 앞으로의 현상을 이치에 따라 예측하고, 미래의 현상을 끌어내는 통제로 구성된다.

지역사회에서 전이되는 모든 현상이 지역학이므로 지역사회가 곧 지역학의 고유한 연구 대상이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학문적 영역을 포괄하며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는 인간 개인이 생활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공동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한 문제의 해결 주체이자 삶의 복지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공동체

의 정치구조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인구변동, 경제발전, 문화가치 및 생활문화의 변동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변화해왔는가를 연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지역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지역에서 생산한 자료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확장된다(염미경, 2018).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지역공동체는 지역민 상호 간에 호혜적 관계가 단절되고, 지역공동체의 해체 현상에 직면해 있다.

지역민의 기억과 정체성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거치는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역사적인 구성물이다(윤택림, 2019).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 기록은 기존의 국가 중심의 관점에서 진행됐었던 지역 기록화와는 다른 독자적인 주체와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과거 지역민의 경험과 생활에 기반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어 자료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가까운 시기의 작은 역사적 단편을 그 시기 동안 살았던 지역민의 목격과 체험, 그리고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기존의 문서자료가 담아내지 못한 것들을 기록하여 생생한 역사 자료화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염미경, 2018). 지역공동체 기록의 부재와 빈곤으로 공백으로 남아있는 지역 연구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상황으로 인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찾고 만들어갈 때 대안적 역사 쓰기로서의 가능성이 구현된다(윤택림, 2019). 이를 위해 지역에서의 기억 수집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구축은 필수적이다. 지역에서 문헌 자료가 부족한 분야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지역민의 기억을 수집하여 아카이브 만들고 마을 역사나 공동체의 역사, 지역민의 생애사도 출판할 수 있다(염미경, 2018). 지역민들의 지역 기록은 특정 범위의 영역 내에 있는 개인의 경험, 공동체의 활동, 지역의 역사 등 지역민의 경험과 기억을 지역민의 관점에서 말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배은희, 2018). 지역민의 경험과 생활에 기반한 개인의 자서전, 공동체 생활사, 기성세대의 기록, 지역 명칭의 기원, 혹은 사회운동가의 생애사, 지방민의 전쟁 경험, 이주민의 생애사, 민속 등 극히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에 이르기까

지 기억의 수집과 정리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어 자료화한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포괄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기록은 지역 연구의 중요한 자료원이 된다. 지역의 생활문화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문헌 자료가 거의 없고, 남아있는 자료마저 기관의 입장에서 서술된 경우가 많다. 지역을 연구하는 데에 지역민이 말로 전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구체적인 삶과 경험, 기억을 담은 유일하고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배은희, 2018). 이러한 자료에 지역 정보와 지식을 더해 지역문화콘텐츠화 할 수 있다. 지역문화콘텐츠는 지역산업의 동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장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더욱 시선을 끌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처분하는 일 못지않게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이미 만들어진 우수한 콘텐츠를 어떻게 향유자에게 연결하고 지역적 전통으로 안착시킬 것인가에 있다(정혜경, 2019). 이러한 역할은 지역 아카이브가 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기억과 기록은 '지역민의 삶'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민의 삶 그 자체는 다양한 삶의 방식(ways of lives)으로 표현되며, 복수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 개인과 집단은 자신이 선택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영위해 나가며, 자기의 역사를 구성하고, 이 구성된 역사를 자기표현대로 기록할 수 있다.

제주의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제주 사회의 기록 연구자의 양성

제주 사회 기록의 가장 큰 특성은 구술성에 바탕을 두고 지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구어(말)로 서술된 지역사를 최종적으로 문자화된 텍스트로 보존한다. 이 과정에서 면담자와 구술자의 상호작용으로 구술 기록이 생산되기 때문에 공동작업의 특성이 있다. 구술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동기로 이야기했느냐, 그리고 면담자가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냈느냐에 따라 구술된 내용의 깊이와 폭, 말하는 방식은 다

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록 연구자는 교육되고, 양성되어야 한다.

기록 연구자(archivists)는 지역사회의 역사, 문서, 사진, 녹음 등을 발견하고 수집하는 구실을 한다. 또한 아카이브에 수집된 자료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기록 연구자는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기록을 보존할지 결정하고 기록물을 해석하는 데 있어 자신의 역량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지역에 관한 관심은 자기 지역민에게 가장 크게 작용한다. 자신과 다른 환경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민의 이야기는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민 간의 소통과 세대 간의 소통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배움과 깊이가 있어야 한다.

2) 아카이브 운영 기관 공식화

아카이브 운영 기관의 공식화는 아카이브 활동을 보다 구조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식화된 기관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인정된다. 아카이브는 지식, 기억, 자양분, 권력의 장소이다. 이는 자료 수집, 선택, 분류, 보존, 관리, 접근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지역 아카이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박물관, 도서관, 대학, 학회 및 지역 사회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고 아카이브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기록의 불변성,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카이브의 디지털화 필요성은 강조된다. 디지털화의 핵심은 모든 기록과 정보를 디지털로 생성, 보관하는 표준 절차와 기술의 접목에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로의 전환은 결국 재정과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계돼 있다. 아카이브에 있어서는 재정적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 전문인력의 구성은 아카이브 담당자가 다른 업무에 얽매여 아카이브 관리와 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우려이다. 공식화된 아카이브 기관은 연구 및 교육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학술 세미나,

워크숍, 강연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여 지역민을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강화된다.

3) 아카이브에서 더 큰 상생 공동체로의 확장

아카이브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더 큰 공동체로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성과 정체성에 의한 상생 공동체로의 확장성이다. 아카이브는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물려주는 선물이며, 아카이브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아카이브가 단순한 기능적 측면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더 큰 상생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 아카이브가 상생 공동체로 확장되면 지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며 아카이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아카이브가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교환하며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4) 아카이브는 지역민의 플랫폼

상생 공동체로 아카이브를 확장하는 것은 아카이브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향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고 열린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목표를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플랫폼은 다양한 용도에 공통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유·무형의 구조물을 의미하지만, 플랫폼에서는 참여자들 간의 상호 호혜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정용복, 2021). 아카이브의 플랫폼으로의 진화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지역민들은 아카이브를 통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의 지식과 노하우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지역민들이 아카이브를 소유하고 운영하면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지역 내에서 중요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민들이 아카이브를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소유하고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아카이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

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5) 지역 저널리즘의 아카이브 활성화

제주지역 미디어의 저널리즘 기록은 기억을 밝히는 동시에 가리는 기능을 한다. 저널리즘으로 생산 배포되는 뉴스는 우리가 잊어버릴 상황을 시각화하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역사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격을 부여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저널리즘은 지역 사건,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보도를 제공한다. 이러한 뉴스 기사들은 특정 시대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연구자, 역사학자, 교육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정보 소스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민에게는 자신들의 삶과 커뮤니티에 관한 기록이 중요하다. 저널리즘은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유지한다.

지역 원로 언론인들의 구술 작업화도 필요하다. 제주 언론은 물론 제주지역 사회의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원로 언론인들이 자신의 기억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술할 수 있는 고령의 원로 언론인이 언제까지 생존해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구술 자료 수집은 시급성이 있어야 하는 작업이다. 구술 작업은 단순히 원로 언론인 개인을 위한 기록성으로서의 의미만 지니는 것은 아니다. 원로 언론인에 대한 구술의 의미도 따지고 보면 개인의 역사성을 통해 최대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로 언론인에 대한 구술은 잠재적이고 실재적인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어우러져 지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밑그림이다(정용복, 2019). 면담자와 구술자, 이를 통해 채록된 구술 기록과 지역사회와의 궁극적인 마주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구술은 여러 차원에서 심미적인 실천적 행위이다. 특히 언론사의 생명이나 언론상품의 생산은 거의 전적으로 사람에 의존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언론인에 관한 구술 작업은 언론환경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 뉴스 기사와 지역성 콘텐츠를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빙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보관 및 공유를 간편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뉴스 기사는 지역 사건 및 경향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1945년 10월 1일 창간한 〈제주신보(濟州新報)〉의 자료 보관의 미비는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고선휘 (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東地方を中心に., 新幹社. 고성중 역 (2006). 〈재일 제주도 사람의 타향살이: 간토지방을 중심으로〉. 제주: 북제주문화원.

김귀옥 (2013). 구술사와 치유: 트라우마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통일인문학〉, 55집, 131-165.

배은희 (2018). 지역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권 2호, 85-108.

안미정 (2008), 오사카 재일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탐라문화〉, 32권, 179-218.

염미경 (2018). 〈구술사로 이해하는 제주사회: 방법과 실제〉. 제주: 성민출판사.

유철인 (1998). 재일 제주인과 제주도. 〈동아시아연구논총〉. 9권 1호, 393-402.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강원: 도서출판 아르케.

이재영 · 정연경 (2018).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 분석: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권 3호, 25-47.

임영호 (2019). 〈지식의 장, 학문의 제도화: 한국 언론학의 정체성 탐색〉. 서울: 컬처룩.

정연경 (2022). 〈기억의 기록으로 쓰는 구술사〉. 서울: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정용복 (2019). 〈제주 언론인의 기억〉. 제주: 제주연구원.

정용복 (2021). 지역방송의 연구경향 분석과 과제: 학술지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적 접근. 〈한국방송학보〉, 35권 3호, 40-86.

정혜경 (2019). 지역문화콘텐츠의 정책 지향과 향유 지속 방안. 〈인문콘텐츠〉, 54호, 181-211.

제주4·3평화재단 (2017). 〈제주4□3 70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하나CNC출판.

조경희 (2015). 불완전한 영토, 밀항하는 일상: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 〈사회와 역사〉, 106권, 39-75.

차배근 (2004). 〈커뮤니케이션학개론 상〉. 서울: 세영사.

사라져가는 제주 문화…
구술채록의 관리·활용 방안은?

변지철
연합뉴스 기자

구술사와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에선 4·3의 기록 상당부분이 구술 증언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문화사 측면에서 구술채록과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제주에서 살아온 5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그 문화를 기억하고 있지만 40대 이하의 세대는 이를 접할 기회도 없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세대는 교육에서나마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연합뉴스는 2021년 3월 제주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제주의 굿과 신화 등 제주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들에게 '굿'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5.4%가 굿을 '본 적 없다'고 답했고, 84.0%가 제주 입춘굿과 영

등굿 등을 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초등학생 63.9%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굿을 통해 전승되는 제주신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중·고등학생, MZ세대(1980년대 초~2010년대 초 출생)에게 물어보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의 문화가 근대화 과정에서 후진적이고 변방의 문화에 불과하다며 천대받았던 것이 사실이었고, 제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무속신앙은 미신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제주의 세시풍속을 익히고 제주의 문화를 접하는 과정이 사실상 단절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구술채록과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아카이브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문화를 취재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형문화재 보유자, 과거를 기억하는 많은 제주의 어르신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전통을 이어왔던 김윤수 심방, 제주시와 제주 서부지역에서 활동했던 고행선 큰심방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관련 취재를 했지만 제주의 대표 생활도구인 구덕과 차롱을 만드는 장인 김희창 어르신이 지난 2021년 12월 돌아가셨습니다. 13살 때부터 구덕과 차롱을 만들기 시작해 66년 만인 지난 2019년에야 비로소 제주도 무형문화재 구덕장으로 인정받았는데, 2년 뒤에 돌아가신 겁니다.

당시 김희창 어르신은 주변의 노력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신청 과정에서 본인조차도 자신의 기술이 문화적 가치가 있을지 스스로 부인하면서 한사코 만류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조사를 나왔던 문화재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단은 '대바구니(대로만든 바구니)는 전남 담양도 유명하다. 담양의 대바구니는 왕대(대나무 중 가

장 굵은 대나무)로 만들지만 제주의 것은 재료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며 '대를 다루는 섬세한 작업이 매우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왕대와 비교해 가느다란 이대를 20여가닥으로 가늘게 쪼개 대오리로 만드는 기술, 그리고 수십년을 쓰고도 살이 끊어지거나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만드는 장인의 실력은 무형문화재 구덕장으로 인정받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제주의 문화는 우수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제주 주민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화인들이 많습니다. 정연경 교수님이 '구술 기록 수집의 양적 증가가 이뤄졌다면 이제 수집된 구술 기록의 관리와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활용의 중요성을 더욱 많이 느낍니다.

흩어져 있던 문화요소들을 많은 사람들이 쉽고 흥미있게 알 수 있도록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미해 영상기록 또는 언론기사, 동화책, 소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대학생들 조차도 활자화된 기록을 보는 걸 꺼려하고 있고, 심지어 영상자료도 보지 않는 현실에서 어떤 활용책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서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님도 제주학 아카이브 개선방안에 대해 '산재해 있는 제주관련 중요자료의 수집과 DB화 제주학 아카이브 확대구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련 기사를 쓸 때 기존 출판된 서적과 인터뷰 자료, 영상, 박물관 기록 등을 참고·인용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 빨리 많은 연구자, 기사, 학생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토론문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라는 주제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제주방언, 제주어는 기본적으로 구어를 대상으로 하므로 필연적으로 구술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집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이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제주어 관련 구술 채록과 아카이브 작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미해결 과제 등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주어를 채록하고 조사하는 일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논문이나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해 이뤄지는 편이었으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제주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부터 추진된 ‘권역별 지역어 조사’ 사업부터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의 지역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민족생활어조사 사업도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제주어 조사 사업을 벌인 것은 2014년부터입니

다.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제주어 구술채록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 의뢰하여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제주 지역의 12개 읍면에서 한 개 마을씩 1년에 12개 마을씩 3년 동안 36개 마을에 대한 제주어 구술 채록 작업을 진행하고 전사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는 조사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의례, 민간요법 등에 대해 정해진 질문지를 기반으로 최소 10시간 이상의 조사 내용을 문자화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앞서 발간된 제주어 구술 보고서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표준어로 대역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간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거쳐 수집된 자료를 모두 표준어 대역하고 주석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작업이 마무리되고 36개 지역, 100여 명의 어르신의 삶과 언어가 제주어와 표준어로 함께 제시됐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아카이브에 이 자료집이 PDF 파일로 탑재되었고 제주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의 전통문화와 세시풍속에 대한 현지 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구술 조사 자료를 책으로 발간하고 제주학아카이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늘 부딪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구술자의 발화는 개인적 경험으로 주관적이고 파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연경 선생님께서는 구술 자료의 '사실적 진실'을 쫓기보다는 '서사적 진실'로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천 자료의 보관과 공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어 연구를 위해 채록한 구술 자료들을 음성과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하고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는 형태로 텍스트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화된 구술 자료는 책자로 발간하고 제주학아카이브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기록한 원자료는 제공 동의서를 받는 최소한의 조치

는 하고 있지만 초상권과 개인사 등 미묘한 문제들 때문에 공개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데이터 용량이 많아 보관에 한계가 있고 2차 자료가 만들어지고 나면 1차 자료는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연경 선생님께서 이러한 원천자료의 보존 필요성에 대해 언급 하시고 국가적 차원의 플랫폼을 제안하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자료 보관과 공개에 대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정연경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영상 기록과 문자 기록의 문제입니다. 인류는 구술의 시대에서 출발하여 문자 시대를 거쳐 영상으로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구술 채록 조사를 진행한 영상과 음성 자료를 문자화하고 이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2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가 문자 중심의 세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소통하는 앞으로의 인류에게 문자 기록은 과연 가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자 기록과 차별적인 영상 기록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기록과 아카이브는 영상 중심으로 바뀌는 것인지, 안현미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3 제4회 제주학 주간 (2023. 9. 20.~10. 6.)

제주학, 기록으로 새기다

제7회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발행일 2023년 9월 20일
기　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
디자인·제작 한그루 onetreebook.com

비매품